

2020 국별 진출전략

네덜란드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노딜 브렉시트 우려 속 네덜란드 기업 이전 본격화	4
나. 바이오기반경제(BBE, Bio-Based Economy)로 전환	5
다. 유럽 시장 관문에서 세계의 관문으로, 네덜란드, 물류 핫 스팟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7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7
가. 정치 환경	7
나. 경제 환경	7
다. 산업 환경	7
라. 정책·규제 환경	11
2. 시장 분석	12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2
나. 교역	13
다. 투자진출	15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16
가. 교역	16
나. 투자	17
III. 진출전략	19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19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
3. 한-네덜란드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5
4. 진출 시 유의사항	29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0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33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35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38
부 록	
對네덜란드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39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네덜란드 경제 기획국, 2020년 경제성장률 1.5% 현상유지 전망

- 최근 3년간 유로존 평균 성장률(2.5%)을 웃도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9~2020년 각각 1.5% 하향 조정
 - 미·중 무역전쟁 및 영국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GDP 성장률 기여율이 높은 수출 지표 큰 폭 감소
- 최근 3년간 높은 수출 증가세(5%)에 비교하여 역대 최저(1.3%, 2019년) 증가 수치
 - 2017년 수출 전망 5.3%에서 2019년 1.8% 큰 폭 하락 전망
 - 미중 통상 분쟁, 영국 브렉시트 노딜 가능성이 높아져 유럽산 자동차 관세부과 등 독일, 영국의 수출환경이 네덜란드 수출 지표 부정적 영향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16.9	17	17.1	17.3	17.4(Q3)	-
명목GDP	십억 달러	750.7	769.9	799.8	828.5	860	893.3
1인당 명목GDP	달러	44,332	45,210	46,829	48,402	50,138	51,967
실질성장률	%	2.0	2.2	2.9	2.7	1.7	1.5
실업률	%	6.9	6	4.9	3.8	3.5	3.7
소비자물가상승률	%	0.2	0.1	1.3	1.6	2.6	1.4
재정수지(GDP대비)	%	-2.0	-	1.2	1.5	1.3	0.6
총수출	백만 달러	570,668	570,995	651,855	653,139	331,465(Q2)	-
(對韓 수출)	"	4,593	4,098	6,133	3,502	2,449(Q2)	-
총수입	"	512,311	504,745	575,129	570,536	287,986(Q2)	-
(對韓 수입)	"	3,918	4,424	5,280	3,475	1,921(Q2)	-
무역수지	백만 달러	58,357	66,250	76,726	82,603	43,479(Q2)	-
경상수지	"	3,875	3,973	3,920	-	-	-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1	1.1	1.1	1.2	1.1(Q3)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49,854	52,879	55,114	5,412,129	55,940(Q2)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40,926	42,783	45,363	32,176	32,772(Q2)	-

주 : 2019년 9월 확인

자료 : 네덜란드 경제기획국(CPB), IMF, 네덜란드중앙은행(DNB)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노딜 브렉시트 우려 속 네덜란드 기업 이전 본격화
- ※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기반경제(BBE, Bio-Based Economy)로 전환
- ※ 유럽 시장 관문에서 '세계의 관문으로' 네덜란드, 물류 핫 스팟

가. 노딜 브렉시트 우려 속 네덜란드 기업 이전 본격화

네덜란드 투자청(NIFA), 본사 이전 계획 100개사, 논의 중인 기업 325개사 (2019년 8월)

- 10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네덜란드 이전 계획
 - 2019년 8월 말까지 98개의 기업이 네덜란드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안정적인 정치 환경, 지리적 이점, 영어 사용 인구 비율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영국을 유럽 진출 거점으로 삼았던 일본 제조, 미디어 기업들의 조직 이전
 -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전자 업체 포함 100여 개 기업과 이전 문제 합의 완료
 - 블룸버그, 디스커버리 TV 채널 등 미디어들도 런던 근로자 일부를 암스테르담으로 이전 배치

유럽 의약청(EMA, European Medicine Agency) 암스테르담 이전

- 본부 이전은 네덜란드에 약 10억 유로의 경제적 효과 예상
 - 브렉시트 국민 투표 이후, 약 2년간 초기 이전한 62개사 유치로 네덜란드 내 약 3억 유로 투자와 2,500개의 일자리 창출
 - 네덜란드 투자청장, 금융, 정보기술, 미디어, 광고, 생명과학, 보건 등 다양한 기업들이 네덜란드에서 새로운 방향을 설계 중이라고 밝힘

암스테르담, 고빈도거래 부분 금융 기업 관심 높아

- 네덜란드 금융감독청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현재 5%에 불과한 네덜란드 주식시장 점유가 30~40%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네덜란드 내 유럽 채권 거래량의 85%가 브렉시트 이후 암스테르담을 통해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유럽 금융의 업종별 거점이 새로 재편성되는 등 우리기업의 진출 분야 및 가능성이 높아짐
- * (더블린/룩셈부르크) 자산운용, 보험, 헤지펀드 (프랑크푸르트/파리) 대형 은행, 투자은행 (암스테르담) 고빈도 거래

나.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기반경제(BBE, Bio-Based Economy¹⁾)로 전환

네덜란드, 2050년까지 100% 지속가능한 에너지 경제 전환 목표를 위해 ‘바이오 경제’로 전환 가속화

- 네덜란드 경제부, 2020년까지 약 400억m³의 천연가스 중 10억m³의 가스를 그린가스로 대체하기 위해 바이오매스 가스 생산 적극 검토
 - 네덜란드는 농업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이오 매스(축산폐기물, 농업폐기물 등) 공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함

해조류, 바이오 기반 경제의 ‘녹색 황금’

-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TNO) 산하 기관인 에너지연구센터(ECN)는 세계 최초로 하루 50kg 규모의 해조류를 공정에 이용하기 시작
 - 해조류를 당, 단백질, 미네랄 등으로 분해해 바이오연료 생산에 적합한 당 시럽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섬유를 위한 원료와 감미료, 향산화제, 미네랄 등의 반제품 생산
 - 식량작물과 농경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한국 및 네덜란드 기관 간 수상 플랫폼 연구, 기업, 정부 투자 확대 및 협력 가능성 높음
- 네덜란드 천연가스 회사 컨설팅 결과, 2035년에는 해조류 등 네덜란드 해역에서 나오는 바이오 매스가 전체 잠재 바이오매스의 26% 점유 예상
 - TNO 관계자는 네덜란드 북해의 9%에 해당되는 면적에서 해조류를 재배할 경우 네덜란드 모든 가정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 ◆ 네덜란드의 유류 플랫폼 엔지니어링 업체 인라다(Inrada)는 1ha당 800톤의 해조류를 생산할 수 있는 해상 플랫폼 구축
 - 지름 113m, 면적 1헥타르인 이 플랫폼은 작은 해조류가 로프를 따라 몇 센티미터 간격으로 둥근 모양을 형성하는 강화된 튜브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형 생물반응기(Bioreactor) 안에서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어 가연성 메탄 가스 2/3, 이산화탄소 1/3과 소량의 수소 및 황화수소로 이루어진 바이오가스 단계로 전환됨
 -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앞바다에서 진행했던 실험에서는 연간 16만m³의 바이오가스 또는 12만m³의 메탄가스로 변환되는 800톤의 해조류 바이오매스를 수차례 생산 성공

1) 바이오 기반경제 : 화석연료가 아닌 생물질(biomass)을 에너지 원료로 운영되는 산업 체제

다. 유럽 시장 관문에서 세계의 관문으로, 네덜란드, 물류 핫 스팟

네덜란드의 No.1 물류 핫 스팟 틸뷔르흐(Tilburg)

- 틸뷔르흐-발베이크 지역은 2019년 네덜란드 최대 물류 온라인 플랫폼인 Logistiek.nl의 물류 핫 스팟 서밋에서 올해의 물류 핫스팟 선정
 - 브라반트 지역 중심에 위치한 틸뷔르흐-발베이크 지역은 (단기)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고품질·대규모의 숙소를 보유해 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새로운 물류 활동을 위한 지자체의 협력도가 높음
 - 틸뷔르흐 시의회 경제부 관계자는 **중국과의 철도 연결 및 해상 항구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네덜란드 대표 물류 거점으로 부상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힘
- 12,000km의 철도로 브라반트 지역과 **중국 연결한 주역, GVT 물류그룹**
 - 브라반트주의 도시 틸뷔르흐가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물류거점으로 거듭난 데에는 브라반트에 본사를 둔 GVT 물류그룹의 역할이 큼
 - GVT 물류그룹은 2017년 하반기부터 자체 보유 중인 유통망, 창고, 바지선(barge) 터미널, 철도 터미널을 틸뷔르흐와 중국 청두를 연결하는 데에 사용
 - 화차 41량으로 구성된 컨테이너 열차는 15일 만에 청두에 도착할 수 있으며 해상 운송보다 대략 30일 빠름
- 네덜란드 대표 물류 기업들이 틸뷔르흐로 본부 및 창고를 이전하는 등, 한국기업의 유럽 유통 관문으로 활용 가능성 높음
 - * 현지 한국 진출기업인 물류 회사 판토스는, 스키폴에서 틸뷔르흐로 본부 및 창고로 이전 확대함

네덜란드와 중국을 연결하는 신(新) 실크로드



자료 : bd.nl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정치) 유럽의회 네덜란드 선거...‘反이민’ 미풍에 그쳐
- ※ (경제) 네덜란드 경제 기획국, 2019년 1.7% 2020년 1.5%의 안정적 경제성장
- ※ (산업) 지역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개방형 혁신 플랫폼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가. 정치 환경

유럽의회 네덜란드 선거...‘反이민’ 미풍에 그쳐

- 반(反)난민·반(反)이슬람을 공개석상에서 거침없이 주장해온 네덜란드의 극우 포퓰리스트 정치인 헤이르트 빌더르스 자유당(PVV) 대표가 23일(현지시간)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참패
 - － 유럽통합을 반대하며 넥시트(네덜란드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주장했던 신생 포퓰리스트 정당 ‘민주주의를 위한 포럼(FvD·이하 포럼)’이 전체 26석 중 3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
- 유럽 회의주의 정당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투표 결과
 - －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에 따르면 ‘포럼’과 자유당을 포함한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에 표를 던진 유권자는 15%로, 노동당 등 친 EU·유럽통합을 주장한 정당들의 득표율(19%)에 못 미침

나. 경제 환경

네덜란드 경제기획국, 2019년 1.7% 2020년 1.5%의 안정적 경제성장 전망

- 민간부문(소비·투자·수출) 3박자가 경제성장에 기여
 - － 실질임금 상승과 고용 확대로 임금소득이 늘어났으며, 주택시장의 회복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있음
 - －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은 아직 경직되어 있지만, 국내외 수요 증가로 대기업의 투자 여력 증가
 - － 달러·파운드 대비 유로화 평가 절하와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회복으로 수출도 증가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경제성장률	2.0	2.2	2.9	2.7	1.7	1.5
민간소비	1.0	2.6	0.3	0.3	1.0	1.4
정부지출	-0.1	1.3	1.1	1.3	2.9	2.5
민간투자	29.1	-6.7	4.4	4.8	4.3	2.1
수 출	7.4	1.7	5.3	2.7	1.3	2.1
수 입	14.5	-2.0	4.9	2.8	2.2	2.8
물가상승률	0.2	0.1	1.3	1.6	2.6	1.4
실업률	6.9	6.0	4.9	3.8	3.5	3.7
재정적자	-2.0	0.0	1.2	1.5	1.3	0.6

자료 : 네덜란드 경제기획국(2019년 6월 발표)

다. 산업 환경

○ 지역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개방형 혁신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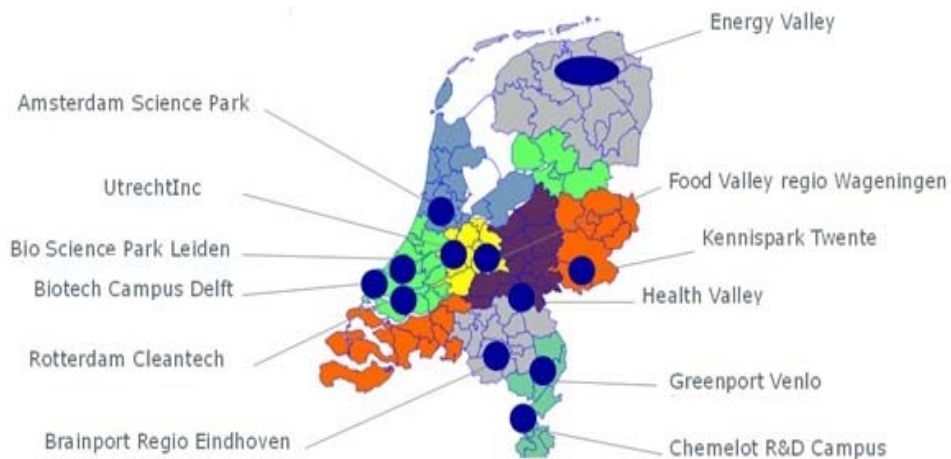
- (동부) HTSM(첨단기술 시스템 및 재료)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이 다수 포진, 기업과 연구소별 워크숍 및 공동 프로젝트 진행 등 스마트 산업에 대한 정보 교류 및 혁신 주도

* 북브라반트 주에 형성돼 있는 **메인테넌스 벨리(Maintenance Valley)**는 첨단기술 제조업 클러스터로, 네덜란드 내 관련 전체 직업 중 7%가 이 곳에서 창출

- (북서부) 암스테르담, 레이든 등 대규모 집합도시를 중심으로 헬스밸리를 조성하여 **첨단 생명 과학 산업**이 발달

* **레이든 바이오사이언스파크(Bio Science park Leiden)**는 네덜란드 최대 생명과학 클러스터 헬스 벨리로 93개의 생명과학 관련 의료기업 및 기관이 입주해 있음

네덜란드 산업 클러스터



네덜란드 선도 산업(Topsector)별 클러스터 및 주요 기업 현황

산업	클러스터명	기관/협회	주요 기업
물		네덜란드 조선업 협회 (VNSI, Dutch Shipbuilding Industry Association)	• 렌텍(Lenntech) • 콜슨(Colsen) • AWT 테크놀로지 (AWT technologies) • 로알 하스코닝 (Royal Haskoning)
		네덜란드 해양기술 협회 (NMT, Netherlands Maritime Technology)	
		네덜란드 해양 기자재 협회 (HME, Holland Marine Equipment Association)	
		네덜란드 워터파트너십 (NWP, Netherlands Water Partnership)	
원예	• 그린포트 (Greenport Venlo) • 시드 밸리(Seed Valley)	네덜란드 식물육종기업연합(Plantum)	• 라익 즈완(Rijk Zwaan) • 엔자 라덴(Enza zaden) • 로알 브링크만 (Royal Brinkman)
		네덜란드 온실 건설 협회 (AVAG, Greenhouse Technology Center)	
		네덜란드 농업원예연맹 (LTO, Netherlands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Organization)	
물류		코넥트(Connekt)	• DHL • 퀴네 + 나겔 (Kuehne + Nagel) • XPO 로지스틱스 (XPO Logistics) • 쉐커(Schenker)
		네덜란드 선진 물류연구기관(TKI-Dinalog)	
		네덜란드 과학 연구기구(NWO, Netherlands Organis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네덜란드 인프라 및 수자원관리부(IenW,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생명 과학	• 위트레흐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UtrechtInc) • 라이덴 생명과학단지 (Bio Science Park Leiden) • 델프트 생명공학대학 (Biotech Campus Delft) • 헬스 밸리(Health Valley)	의료기술 컨소시엄(Medical Delta)	• 메드트로닉(Medtronic) • 필립스(Philips) • 아드레나(Ardena) • QPS • 미메타스(Mimetas)
		위트레흐트 생명 과학 네트워크 (ULS, Utrecht Life Sciences)	
		북부 네덜란드 항노화 네트워크 (HANNN, Healthy Ageing Network Northern Netherlands)	
		브레인포트(Brainport)	
		마스트리히트 대학의료센터(Maastricht UMC+, Maastricht University Medical Center Plus)	
첨단 기술	• 암스테르담 과학단지 (Amsterdam Science Park) • 아인트호벤 브레인포트 (Brainport Eindhoven) • 케니스파크 트벤테 (Kennispark Twente)	델프트 공대 (TU Delft, Technical University of Delft)	• 247테일러스틸 (247Tailorsteel) • ASML • 블루엔지니어링 (Blue Engineering) • 브롱호스트 하이테크 (Bronkhorst high-tech) • 데콘(Demcon) • 어드밴스드 메카트로닉스 (Advanced Mechatronics B.V.) • NXP 반도체 (NXP Semiconductors N.V.) • TSO 그룹(Tso groep) • 렐리(Lely) • 발크 벨딩 (Valk Welding)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TNO, Netherlands Organisation for Applied Scientific Research)	
		아인트호벤 공대 (TU/e,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오픈 이노베이션 R&D 센터, 홀스트 센터 (Holst Centre)	
		트벤테 대학(UT, University of Twente)	
		네덜란드 라디오천문학연구소(ASTRON,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Radio Astronomy)	
		네덜란드 국립항공연구원 (NLR, National Aerospace Laboratory)	
		네덜란드 국립수학전산학연구소(CWI, centrum for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산업	클러스터명	기관/협회	주요 기업
에너지	·에너지 밸리(Energy Valley) ·로테르담 클린테크 (Rotterdam Cleantech)	네덜란드 국립 원자 및 분자 물리학 연구소 (AMOLF, The Institute for Atomic and Molecular Physics)	• 벡호프(Beckhoff)
		브라반트 발전 협회 (BOM, Brabant's development society)	
		네덜란드 화학산업협회(VNCl, The Royal Association of the Dutch Chemical Industry)	
		네덜란드 지속공정기술연구소(TKI- ISPT, TKI-Institute for Sustainable Process technology)	
창의 산업	-	네덜란드 핵심에너지 연구소(DIFFER, Dutch Institute for Fundamental Energy Research)	• 셸(Shell) • 에네코(Eneco) • 뉴 에너지 시스템 (New Energy Systems) • 누온(Nuon)
		네덜란드 국립수학전산학연구소(CWI, centrum for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네덜란드 창의산업 네트워크(ClikNL, Dutch Creative Industries knowledge and innovation network)	
		네덜란드 게임협회(DGA, Dutch Games Association)	
화학	·체멜롯 R&D 캠퍼스 (Chemelot R&D Campus)	네덜란드 창의산업 협회(Dutch Creative council)	• 아브로트로스(Avrotros) • 베알프35(Werf35) • 디즐로 필름(Dyzlo Film) • 파워 언리미티드(Power Unlimited)
		암스테르담 창의산업 네트워크(ACIN, Amsterdam Creative Industries Network)	
		트벤테 대학(UT, University of Twente)	
		델프트 공대(TU Delft, Technical University of Delft)	
		아인트호벤 공대 (TU/e,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로테르담 항(PORT of Rotterdam)	
		네덜란드 중합체 연구소(DPI, Dutch Polymer Institute)	
		위트레흐트 대학(UU, Utrecht University)	
농식품	·푸드 밸리(Food Valley)	네덜란드 지속공정기술연구소(TKI- ISPT, TKI-Institute for Sustainable Process technology)	• 약조노벨(Akzo Nobel) • 바스프네덜란드 (BASF Nederland) • DSM • 렉티셀네덜란드 (Recticel Nederland) • 라이온델 케미컬 네덜란드(Lyondell Chemie Nederland) • 엘버말(Albemarle Netherlands B.V.) • 론자 유럽 (Lonza Europe) • 볼시어스(Bolsius)
		호로닝언 항만공사(Groningen Seaports)	
		바헤닝언 대학교(Wageningen University)	
		식품영양연구원(TIFN, Top Institute for Food & Nutrition)	
농식품	·푸드 밸리(Food Valley)	네덜란드 국립환경보건연구원(RIVM,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 코퍼트 바이오로지컬 시스템(Koppert) • 유니레버(Unilever) • 리더 그룹 (Ridder Group) • 코데마(Codema) • 프리바(Priva)
		농식품 TKI 컨소시엄(TKI Agri & Food)	

라. 정책·규제 환경

- 네덜란드는 9개의 선도 산업(Top Sector)*을 국가 미래 산업으로 지정, 첨단기술(HTSM)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간 기술을 융합하여 4차 산업 주도
 - * 농식품, 원예, 첨단기술(HTSM), 에너지, 물류, 창의산업, 생명과학(LS&H), 화학, 물 산업
- 네덜란드 정부는 위 9개 산업을 국내 주력산업이자, 지속적인 발전 및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중 지원하고 있음
- 네덜란드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는 민관합동 연구개발 컨소시엄(TKI)과 중소기업 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MIT)에 연구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매년 예산 편성
 - 네덜란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초 과학 연구와 그 밖의 기타 활동을 지원하는 기초과학 연구원(NWO), 네덜란드 응용과학기술 연구소(TNO) 을 통해 Top Sector 연구개발 프로젝트 자금 지원
 - * 2018~2019년 Top Sector 관련 연구 개발 투자 금액은 약 총 5억 5,000만 유로
 - * 네덜란드 선도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은 1년에 한 번 타당성 분석, 지식 바우처, 공동 R&D 프로젝트, 고급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을 네덜란드 기업진흥청(RVO)에 요청 가능

2016년 네덜란드 선도 산업별 부가 가치 및 고용 창출

(단위 : 백만 유로, 1000 FTE)

선도산업 (TOP Sector)	주요 활동	부가가치 (백만 유로)	고용 (1,000FTE)
1	첨단기술	하이테크 소재 및 장비, 항공	46,375
2	물류	여객, 화물, 운하 등 물류유통시장, 스키폴공항, 로테르담항	28,444
3	농식품	농식물 푸드 체인, 푸드 벨리	16,563
4	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 에너지 벨리	19,899
5	창의산업	건축, 패션, 게임, 산업디자인, 미디어	11,802
6	화학	석유화학, 기초원료 및 정밀화학	12,794
7	원예	시설원예, 화훼, 과수, 그린포트(시설원예 클러스터)	9,709
8	물	수자원 개발·이용, 간척기술, 해양건설	6,048
9	생명과학	백신, 진단,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질, 예방기술	3,489

자료 : 네덜란드 통계청(2019년 9월 확인)

2 시장 분석

- ※ 네덜란드, 유럽 최초 외국기업 대상 부가가치세(VAT) 유예 제도 도입
- ※ 2020년 정부 예산안 발표(Princedag), 2021년 법인세 소폭 인하
- ※ 네덜란드, 2018 DHL 세계연결지수(DHL Global Connectedness Index) 1위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네덜란드, 유럽 최초 외국기업 대상 부가가치세(VAT) 유예 제도 도입
 - 네덜란드는 세법 제23조(Article 23 license)라는 제도를 통해 외국기업에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와 보세창고를 제공
 - 보세창고에 제품을 보관하면 이중관세를 피하고 상품이 출고되기까지 관세를 미룰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외국기업은 부가가치세 유예를 포함한 세무 업무를 대리할 세무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외국기업은 조세 당국에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할 의무가 없으며, 지정된 부가가치세 대리인이 조세 당국에 납세자로 등록
 - 회계법인, 물류창고사 혹은 통관 대리인도 세무대행업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을 대리해 부가가치세 유예, 세관 신고, 수신인 관세 부담(reverse charge mechanism) 신청 등의 업무 가능

네덜란드 세무대행 업체 리스트

세무 대행 업체명	홈페이지/연락처	비고
Pantos Logistics	www.pantos.com +31 (0) 10 428 4241	• 한국 물류 업체 • 세무대행 겸함
Maco Customs Services	www.macocustoms.com +31 (0) 10 428 6161	• 세무대행만 • 운송업체 알선 가능
VCK logistics	www.vcklogistics.com +31 (0) 20 587 7877	• GDP (우수유통관리기준) 인증 • 냉동 창고 보유 • 의약품 수입대행 • 일반·제한 라이선스 보유
De Jong Koeriers	www.dejongkoeriers.nl +31 (0) 252 229074	• GDP 인증 • 냉동 창고 보유 • 의약품 수입대행
Cyber Freight	www.cyberfreight.nl +31 (0) 252 229074	• GDP 인증 • 냉동 창고 보유 • 의약품 수입대행
SILS	www.sils.nl +31 (0) 55 599 4325	• 일반·제한 라이선스 모두 보유 • 냉동 창고 보유

자료 :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

- 2020년 정부 예산안 발표(Princedag), 2021년 법인세 소폭 인하
 - 네덜란드 정부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 차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 주로 내수, 복지(연금, 의료보험 개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법인세 관련 언급
 - 2020년 법인세는 현상 유지, 2021년부터는 20만 유로까지 과세 소득에 대한 최저 세율이 15% 인하 조치
 - * 2019년 19% → 2020년 16.5% → 2021년 15% (유럽 평균 법인세 22.5%, 2019년 기준)
 - 또한 20만 유로가 넘는 과세 이익에 대한 최고 세금은 25% → 21.7% 감소
- 네덜란드, 2018 DHL 세계연결지수(DHL Global Connectedness Index) 1위
 - 유럽 시장 중심지에 위치해 1,000km 이내에 약 2억 5천만 명의 소비자 보유
 - 2018년 로테르담 항구를 거쳐 간 화물은 약 4.7억만 톤으로 유럽 1위, 세계 10위
 - 철도·육로·해상을 통해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에서 24시간 이내에 1억 6천만 명의 소비자에게 도달 가능
 - 네덜란드는 Cisco, Flexport, DHL과 같은 주요 물류회사들이 있는 유럽의 관문으로 농업·식품, 패션, 의료 등 다양한 산업의 유통센터가 위치
-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네덜란드 4위 기록
 - 글로벌기업 다수가 네덜란드에 포진해 있으며, 높은 혁신 역량 보유
 - 세계 500대 기업 중 12개가 네덜란드에 소재, 유럽 500대 기업 중 24개사가 네덜란드 소재
 - * 세계 500대 기업은 Forbes 선정, 유럽 500대 기업은 Financial Times 선정
 - 과거 상위 10위권 내에 포진하다 2018년 2위, 2019년 4위 기록
 - * 지식 흡수(Knowledge absorption) 2위, ICT 인프라 4위, 혁신 네트워크(Innovation linkages, 5위) 기록

나. 교역

네덜란드는 세계 6위 수출국

- 네덜란드는 교역량, 수출액 기준 세계 6위
 - 2015년 수출액 5,667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의 3.5%, 수입액은 5,063억 달러로 세계 수입의 3%를 차지함
 - 2007년 이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만 제외하고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대외 교역규모 유지
 - 유럽 내에서는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전체 교역 및 수출액이 크며, 수입의 40% 이상이 중계·가공무역의 형태로 인근 유럽 국가 등으로 재수출됨
- 2019년 6월 기준, 수출은 3,131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
 - 네덜란드의 수출은 2018년 기준 6,122억 유로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브렉시트 및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
 - 주요 수출대상국은 독일, 벨기에, 영국, 프랑스 등 EU 국가이며, 주요 수출품목인 전화기기, 석유·원유류, 자동차·자전거, 의약품·의료기기, 인쇄기기, 자동차 등

네덜란드 10대 수출국가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18/19)
		2018년	2019년 6월	
	합계	612,234	313,164	4.9
	역내	429,135	219,167	4.1
	역외	183,100	93,997	6.7
1	독일	134,590	69,215	5.5
2	벨기에	64,794	33,787	7.3
3	영국	48,014	25,371	7.9
4	프랑스	49,770	24,727	-0.4
5	미국	26,513	14,216	19.4
6	이탈리아	22,712	11,509	0.2
7	스페인	18,223	9,387	4.4
8	폴란드	14,929	7,472	2.5
9	스웨덴	13,835	6,596	-0.8
10	중국	10,657	6,511	28.5
23	대한민국	5,022	2,458	-5.3

주 : 품목은 HS코드 4단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9년 10월 확인)

네덜란드 10대 수출품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18/19)
		2018년	2019년 6월	
	합계	612,234	313,164	4.9
1	석유류	45,693	23,812	7.9
2	전화기기	34,224	12,877	-19.5
3	자동차료처리기기	24,300	11,775	5.0
4	의약품	19,172	10,964	18.7
5	의료기기	10,619	6,038	16.9
6	전자직접회로	12,110	6,029	5.9
7	인혈, 백신류	12,079	5,633	5.5
8	원유류	10,962	5,616	20.6
9	반도체	8,686	5,075	33.8
10	인쇄기기	9,877	4,384	-12.5

○ 수입은 2019년 6월 기준 2,812억 유로로 전년 대비 5.4% 증가 중

- 2018년 기준, 네덜란드의 수입액은 5,472억 유로에서 2019년 5.4% 증가세
- 주요 수입대상국은 독일, 중국, 벨기에, 미국 순으로 2018년에는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대외 교역 1위로 부상
- 주요 수입품으로는 원유, 석유류 및 전화기기, 자동차료처리기기 수입
- 수입의 40% 이상이 재수출됨에 따라 주요 수출입 상위품목도 유사한 특징을 가짐

네덜란드 10대 수입국가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18/19)
		2018년	2019년 6월	
	합계	547,268	281,234	5.4
	역내	243,345	127,159	4.8
	역외	303,923	154,075	6.0
1	독일	79,179	40,623	1.2
2	중국	84,944	39,496	2.6
3	벨기에	44,193	22,442	3.2
4	미국	38,536	21,624	17.6
5	영국	27,950	13,868	-0.8
6	러시아	21,429	10,616	-4.1
7	프랑스	17,313	9,142	4.1
8	이탈리아	10,630	5,887	13.1
9	노르웨이	11,081	5,511	7.2
10	일본	10,085	5,432	5.7
19	대한민국	5,799	2,928	3.4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9년 10월 확인, 품목: HS코드 4단위)

네덜란드 10대 수입품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18/19)
		2018년	2019년 6월	
	합계	547,268	281,234	5.4
1	원유류	41,279	20,614	5.5
2	석유류	27,595	13,898	3.1
3	전화기기	34,151	13,144	-15.1
4	자동차료처리기기	25,229	13,142	13.2
5	의약품	13,364	7,434	21.1
6	자동차	11,727	6,781	4.7
7	전자직접회로	9,942	5,758	21.1
8	의료기기	8,404	4,453	11.7
9	인쇄기기	7,899	3,607	-9.7
10	인혈, 백신류	6,425	3,561	14.7

다. 투자진출

- 네덜란드는 한국의 7번째 투자진출국이며 유럽 내 최대 투자진출국
 - 2017년 누적 신고건수 기준, 전체 해외 투자건의 0.49%, 신고금액 3.1% 차지
 - 한국의 대(對)네덜란드 투자는 2000년대 후반부에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에도 이어지며 2013년 최고 기록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 2019년 8월 기준, 대(對)네덜란드 수출 29.7억 달러, 수입 31.7 달러
 - 2015년 이후 주요 제품 무역량 증대로 2017년까지 수출 21%, 수입 45% 증가하였으나, 최근 브렉시트, 미중 무역 분쟁 등 대내외 요인으로 수출 지속 감소세
 - 무역수지는 2008년 경제위기 당시까지는 큰 폭의 흑자세를 유지했으나, 2019년 수출이 급감하며 적자세로 전환

한국-네덜란드 무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9년	2,970	-12.0	3,173	-35.5	-203
…6월	2,293	-9.2	2,388	-41.6	-95
…7월	2,668	-12.7	2,808	-36.6	-140
…8월	2,970	-12.0	3,173	-35.5	-203
2018년	4,775	2.7	6,897	12.3	-2,122
2017년	4,649	21.7	6,142	45.2	-1,493
2016년	3,821	-5.0	4,229	-2.8	-408
2015년	4,024	-24.0	4,349	-5.6	-325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9년 10월 확인)

- 2019년 8월 기준, 대(對)네덜란드 수출 12% 지속 하락세
 - 국내 반도체 소자업체 투자 위축에 따라, 수입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59.1%) 및 부품(▼45.1%) 하락세
 - 수출 소폭 감소에도 불구, 전기자동차(▲260%), 전산기록매체(▲644.4) 등 주력 제조 품목이 높은 증가세

한국-네덜란드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18/19)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18/19)
		2018년	2019년 8월				2018년	2019년 8월	
	합계	4,775	2,970	-12.0		합계	6,897	3,173	-35.5
1	발전기	366	223	-21.8	1	반도체제조용장비	3,805	1,127	-59.1
2	합금철	319	212	5.7	2	집적회로반도체	41	370	1,517.5
3	전기자동차	143	201	260.0	3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507	198	-45.1
4	제트유및등유	376	198	-35.0	4	나프타	291	136	-35.9
5	승용차	283	170	-29.7	5	낙농품	143	101	-5.1
6	합성수지	237	158	-3.4	6	승용차	79	60	-1.1
7	건설중장비	199	134	12.7	7	가축육류	90	53	-18.3
8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161	127	1.7	8	의약품	86	47	-22.9
9	공기조절기	118	88	-3.9	9	기타정밀화학원료	78	45	-15.6
10	전산기록매체	45	82	644.4	10	합성수지	87	44	-24.6

주 : 품목은 MTI 4코드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9년 10월 확인)

나. 투자

- 2018년 누적 투자금액 기준, 네덜란드 투자 금액은 약 2.7%, 법인 수는 0.3%
 - 2019년 3월 기준, 신규 법인수는 2건, 투자금액은 약 백만 달러
 - 2018년까지 네덜란드는 한국의 유럽 내 최대, 전 세계 7번째 해외 투자 진출국임

한국의 대(對)네덜란드 직접투자 현황

(단위 : 개, 천 달러)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7	60	17	282,836	100	366,535
2018	53	9	847,903	98	755,155
2019	7	2	846	14	744

자료 : 한국 수출입은행(2019년 10월 확인)

- 대부분 대기업 위주의 판매 및 물류, 서비스 형태 진출
 - 삼성전자(물류·판매), LG(판매·서비스), 현대·기아차(판매), SK 루브리컨츠(판매), 한국타이어(판매), 한솔(판매), 범한판토스(물류·운송) 등 주로 중견 및 대기업 위주 진출이 주류를 이룸
 - ※ 2012년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반도체 리소그래피(노광) 장비업체인 ASML에 차세대 리소그래피 기술 공동개발 R&D 등을 위해 총 7억 7,900만 유로를 투자

투자진출 사례 분석: 바이오시밀러 제약회사 C사

- 류마티스의 바이오 시밀러 제조사인 C사는 헝가리에 유럽 법인이 있으나, 유럽의 새로운 판매 및 물류 거점을 이용하기 위해 네덜란드에 투자진출을 시행함
- 현재 헝가리의 경우 C사의 현지 약품 가공업체가 있어 주재원 1인으로 운영하는 아주 작은 투자진출
- C사의 경우 약품 가공은 헝가리에서, 물류는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에 가공, 판매 및 물류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투자진출 거점을 찾는 중 네덜란드로 결정함
- 투자진출 시 특별한 진입장벽은 없었으나, 바이오시밀러 제조사로서 처음 네덜란드에 진출하여 노하우를 전수 또는 공유할 만한 사례가 없음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성공 포인트 : 바이오시밀러는 고가의 바이오의약품을 대체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며, 이 같은 의료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의료보험 회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유로 시장에 성공적인 진출이 가능하였음

○ 광업, 건설 등 분야 우회투자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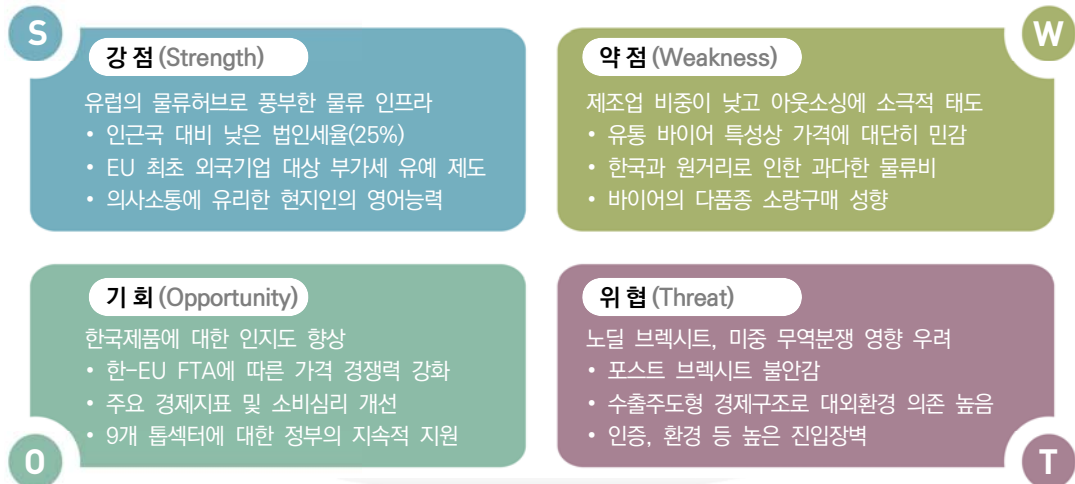
- 대(對)네덜란드 누적 투자금액이 가장 큰 분야는 광업으로 석유공사의 카자흐스탄 자원개발 투자가 대표적이며, 한전의 사우디 라빅 발전소 건설을 위한 합자회사 설립 등 우회투자가 증가세

Ⅲ. 진출전략

- ※ 수출기업의 기반 구축 및 기본 마케팅 사업을 통한 수출 저변 확대
- ※ 미래 먹거리 등 전략분야 대표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
- ※ 기업의 투자진출 형태에 따른 맞춤형 투자진출 지원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네덜란드 시장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인증, 환경규제 파악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대응	디지털 세대 소비를 집중 공략
ST 전략 (강점 활용)	FTA 수혜효과가 큰 품목(생활소비재 등)에 대한 내수기업의 수출지원 강화	디지털을 활용한 유통시장 공략
WO 전략 (기회 포착)	친환경 분야(그린조션, 신재생 등) 및 전략 분야(의료 등)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 확대	현지생산 후 온라인 판매
WT 전략 (위험 대응)	M&A 등을 통한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디지털을 활용한 물류·유통사업 진출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K-Beauty 활용한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유망품목 타깃팅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6년 유럽향 화장품 수출액은 약 9,250만 유로로, 2009년 대비 약 900% 성장
 - * 프랑스 La Fayette, Le Bon marche, 영국 Selfridge 등 유럽 대형 백화점에 진출하는 한국 화장품 증가추세
- 현지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PR 업체를 통해 주류시장 진출 필요
 - * 지금까지 K-beauty 시장을 이끈 것은 한류팬을 위주로 하는 온라인 웹숍(webshop)임
- 혁신적인 기술(파운데이션 쿠폰 등), 패키징 등 제품 경쟁력 제고
 - 기존 귀여운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았던 K-Beauty가 세련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도 호응을 얻고 있음
 - 동물실험, Vegan(채식주의) 등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런 요소를 강조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
- EU 역내 화장품 인증절차 숙지 등 사전준비 철저
 - 2013년부터 시행된 EU no. 1223/2009 규제에 따라 EU 역내로 수출되는 모든 화장품은 CPNP라는 전자포털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 EU 역내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책임자(RP)를 통해서만 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음. RP는 시장에 출시된 각각의 화장품에 대해 규정된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CPNP 등록을 위해서는 제품안전성테스트(CPSR) 포함 제품정보파일(PIF)을 반드시 보유해야 함
- 현지 PR 업체와 협력을 통해 주류시장으로 진출 노릴 것
 - 특히 네덜란드 시장의 경우 대형 유통망 진출에 있어 바이어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벤더를 통해서만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으로 현지네트워크를 잘 활용한다면 더 진출이 쉬움

사례 분석 : 화장품 제조업체(네덜란드 수출)

- 브랜드에 대한 확고한 철학으로 바이어들의 호응 얻음
- 파라벤 등이 포함되지 않은 천연제품 사용으로 유럽 소비자들에게 어필함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2015)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2016. 6)
330499	기초화장품	53.35%	31.22%

- **제품의 비교우위** :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패키징 디자인에 뛰어난 가격경쟁력, 고급스러운 패키징 디자인 및 천연성분으로 특히 유럽의 젊은 소비자층의 관심을 끌고 있음

•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CPNP (RP + PIF)
성약 소요기간	3개월
바이어 발굴경로	■ Telemarketing ■ 전시회 □ Sales Rep. □ PR agent ■ 기타(무역관행사)
바이어 D/B	D&B, Google, 무역관 보유 자체 네트워크 활용 등
유망전시회	Beauty Trade Festival/네덜란드 화장품 전시회(2017. 9. 16~18/6개월 주기)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 (인증 필요)** 2013년 이후로 반드시 CPNP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온라인 매장에서 인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 거래에 대해 최근 관리당국의 감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임(**PR 적극 활용**)
아직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가 소수 한류팬들을 위주로 형성 되어 있으므로 현지 PR을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유연한 MOQ 대체**) 유럽 바이어들은 전반적으로 초기에는 많은 수량을 오더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며, 초기 낮은 오더 수량에 대해 시장성 파악의 기회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것

네덜란드 K-Beauty 신규수출 온-오프라인사업 사례

① K-Beauty 팝업스토어 개최

- 참가업체: (국내) 내수기업 16개사, (해외) 관련 바이어 5개사
- 사업기간 및 장소 : 2019. 5.31~6.16 /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등
- 추진방식
 - 온라인 스토어 Haruharu Beauty, Little Wonderland, Koreosity가 암스테르담 시내에서 K-beauty 팝업스토어 진행
 - Shop Ichigo와 Noonawon도 로테르담 등 별도의 전시회에서 팝업스토어 부스 운영함
 - 기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던 제품과 유망 내수 업체 중 바이어가 희망한 제품을 수입하여 현장 판매 실시
- 추진 내용
 - 유럽 화장품인증(CPNP)을 받았거나 준비 진행 중인 유망 K-Beauty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직결형 사업으로 추진
 - 암스테르담 시내 쇼핑중심지에서 K-Beauty 온라인판매 기업들이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장소 및 기회 제공
 - K-Beauty 내수기업 제품 취급을 희망하는 바이어에게 참가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
- 바이어들과 무역관의 긴밀한 협조로 팝업스토어 장소에서 뷰티 세미나, 프레스홍보/간담회, 한국식품 시식 등의 행사 접목을 장려하여 제품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K-브랜드 파생 홍보효과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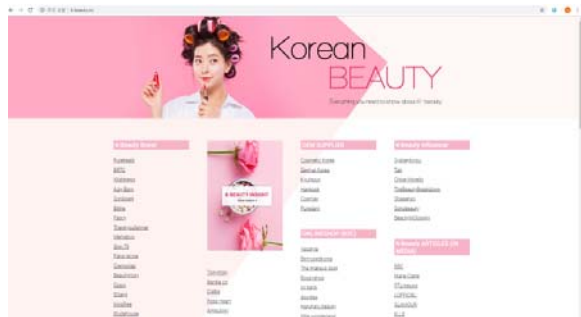
② K-Beauty 온라인 포털 구축

- 사업기간 : 2019년 4월 구축 완료
- 추진 내용
 - K-Beauty 관련 브랜드, 공급생산자, 네덜란드 수입상, 인플루언서(블로거/유튜버) 등의 링크를 한곳에 모아놓은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포털사이트 제작
 - 산재되어 있는 K-Beauty webshop을 한곳에 모아 현지 수요자들이 판매처에 쉽게 접근하고, K-Beauty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공

〈암스테르담 팝업 스토어〉



〈온라인 포털 www.k-beauty.nu〉



2-2. ICT 산업 등 유럽 고도기술 선택과 집중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ICT 인프라 중심으로 유럽 내 데이터 센터 시장으로 부상
 - * 유럽 4대 데이터센터 시장인 런던,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파리 중 암스테르담은 2015년 4/4분기 동기 대비 14% 성장하며 가파른 상승세
 - * 구글(2014년) : 네덜란드 흐로닝헌 시(市) 7억 7,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2017년 준공 예정
 - * 마이크로소프트(2016년) : 네덜란드 노르트홀란드 주 1000ha에 달하는 대규모 농업단지에 데이터 건설 설립 중

◦ 경기불황 속, 시장 맞춤형 틈새상품 개발 필요

- 소프트웨어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상용화 가능한 제품을 개발 및 집중 마케팅함으로써 경기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대안이 될 수 있는 수익구조 개발

성공사례

네덜란드 진출 희망기업 T사의 경우, 글로벌 해운시장 불황에 따라 기존 항만관리 소프트웨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고, 이에 따른 대안으로 항만관리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술 노하우를 선박 용접 분야에 접목한 '용접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기존 고객사뿐만 아니라 대학, 공업고등학교 등 민간기업으로 판매를 확대하여 전체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20억 원 규모의 신규 매출을 예상

◦ 유럽 선도기술 시장 유력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홍보전략 확대

- 유럽 최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장비전시회(IBC)* 등 유럽의 국제전시회를 바이어 발굴, 자사제품 시장성 파악, 제품인지도 제고를 위한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
- 신규 제품 프로모션을 통한 시장 개척과 방송통신 사업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

* 유럽 최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암스테르담) : 2020.2.10~13

◦ 즉각적인 고객수요 대응을 위한 현지 지사 설립 검토

- 끊임없는 R&D와 A/S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므로 현지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해 고객사의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 필요

사례 분석 : 셋톱박스 제조업체 K사

- 유럽 전역에 방송서비스를 하는 L사의 방송수신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초기 단계(제품개발, R&D 등)부터 적극 참여
- 고객사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지법인 설립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2015)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2016. 6)
85260	셋톱박스	-62.82%	-21.18%

- **제품의 비교우위** : 셋톱박스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품질, 납기, A/S 및 R&D 능력 등이 타 국가와 비교해 한국산이 높은 것으로 평가. 특히 K사의 경우, 신규 생산거점(중국, 동남아 등)에 공장을 보유해 유럽 업체 대비 높은 가격경쟁력 보유

•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CE
성약 소요기간	계약 체결 시 3년 이상/ 첫 접촉부터 계약까지 평균 약 2년 이상 소요
바이어 발굴경로	☐ Telemarketing ☒ 전시회 ☐ Sales Rep. ☐ PR agent ☐ 기타 : 무역관 발굴
바이어 D/B	www.wlw.nl
유망전시회	방송통신 장비전시회(IBC)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 셋톱박스의 경우, 신규제품 프로모션을 통한 시장 개척과 방송통신 사업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 이에 세계적인 방송통신장비전시회와 포럼에 꾸준히 참가해 기존 해외고객사와 관계를 강화하고 신규 바이어를 발굴해야 함. 또한,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신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품질 제고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R&D와 A/S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므로 현지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해 고객사의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2-3. 위기를 기회로, 침체된 조선-해양산업 기본부터 시작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네덜란드는 2016년 유럽에 건설된 전체 신규 풍력발전기 중 7.1%를 차지하며 전체 3위
 - * 풍력발전 분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WindEurope사 조사에 의하면, 네덜란드 내 2016년 신규 설립된 풍력발전기 규모는 887MW이고 2015년에는 621MW임
 - * 2016년에 유럽 전역에서는 총 13.9GW 규모의 신규 풍력발전기가 설치됐으며, 그중 12.5GW가 EU 내에 설치됨
- 제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기 네트워크 구축 필요
 - 타깃 바이어의 성향과 취향 파악이 중요하며, 네덜란드 유통망 취급 품목 중 히트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제품과 디자인을 바이어에게 제시
- 대중소 동반진출을 통한 시장진출 가능성 확대
 - 북해 해양플랜트 노후설비 개선과 유전 개발 프로젝트에 국내 조선기업과 조선기자재 업체가 협력하여 진출 가능성 모색 필요
 - * 서유럽의 해양플랜트 유지수는 2014년 이후 감소세지만, 생산량은 유지되고 있고,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가 꾸준히 진행 전망(Oil&Gas Journal)
- 조선·해운 분야 세계 3대 전시회 적극 활용
 - 항만기술 분야의 선진국이 산재해 있는 유럽 시장 내 레퍼런스를 강화함으로써 뛰어난 기술력을 입증하고 다른 해외국가 진출의 발판으로 삼고자 함
 - * 2018 EUROPORT ROTTERDAM, 2018 SMM, 2018 POSIDONIA

사례 분석 :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탈질/탈황 저감장치 P사(네덜란드 수출)

- 초기 시장에 진입하여 자외선 기술방식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2017년 9월 4일 기준 1,185척 계약)
- 조선 불황 속에서도 시장점유율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제품의 비교우위** : 자외선 처리방식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타 업체와 차별화 확보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 (2015)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 (2016. 6)
847989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탈질/탈황 저감장치	2.79%	17.63%

•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국제해사기구 인증서, 각종 선급 인증서, 미국 해안경비대 인증서
성약 소요기간	최초 인콰이어리 접수 후 8~12개월
바이어 발굴경로	☐ Telemarketing ☒ 전시회 ☒ Sales Rep. ☒ PR agent ☒ 기타(컨퍼런스)
바이어 D/B	각종 전시회/컨퍼런스 참가 시 B2B 미팅, 기존 고객사 주기적 미팅
유망전시회	2017 EUROPORT ROTTERDAM, 2018 SMM, 2018 POSIDONIA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 (기술력 바탕으로 단단한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 무엇보다 안정성과 기술력이 중요한 품목으로 초기 네트워크 구축 및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 실제 P사의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신제품 개발로 2010년부터 거래를 시작한 전 세계 500여 선주사와 꾸준히 거래하고 있으며, 자외선 처리방식을 원하는 선주들은 실제로 먼저 거래요청을 해오고 있다고 함(전시회 적극 활용) 조선기자재 시장이 아직도 침체되어 있어 많은 업체들이 마케팅·홍보 활동에 위축되어 있으나, 각종 해외 전시회·컨퍼런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필요하며, 특히, 전 세계 선주사의 30%가 분포된 유럽의 유망한 전시회에 꾸준한 참가를 통해 고객들이 지속가능한 업체로 인식해 장기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3 한-네덜란드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스타트업) 스타트업 유럽 진출은 곧 글로벌 일자리 창출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암스테르담은 런던, 베를린, 파리에 이어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이뤄진 유럽 내 4위 도시(전 세계 19위,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8)
 - * 이 중심에는 네덜란드 민관협동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기관 'TechLeap NL(舊 스타트업델타(StartupDelta))'가 있으며 정부, 기업과 연구소를 연결함
- 유럽의 혁신과 창의 중심국으로 발돋움, 이는 스타트업의 주요 기업가 정신인 '혁신 DNA'를 보여줌
 - * 네덜란드 델프트공대(TU Delft)와 아인트호벤공대(TU Eindhoven) 두 팀이 하이퍼루프, 로봇, 태양광 분야 세계 경진대회에서 1위를 수상한 바 있음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비중 약 12%로 전 세계 1위
 - 단순 스타트업 수보다는 높은 엑시트 용이성, 시리즈 A 투자 확보 등 스케일업(Scale-up) 기업으로 성장이 중요
 - 네덜란드 내 스케일업 한 스타트업 수는 약 3,237개로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
- 일자리 생태계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 에라스무스 기업가 센터(ECE)의 'Scale-up Dashboard Growth 2017'에 따르면, 2013~2016년간 스케일업 기업을 통해 약 3만 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 2014년 98개의 스타트업이 급성장하는(fast-growing) 기업으로 성장했고, 2016년에는 331개로 증가하며 급성장 중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네덜란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활용
 - 해외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대학-연구소와 기업, 정부 등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체계 안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야 성공적으로 기업 생태계에 뿌리내릴 수 있음
 - * 최근 한국기업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투자(1만 5,000유로)와 멘토링을 받고, 유럽 VC에 IR을 실시하여 글로벌기업과 협업사업을 진행하며 성공사례 창출
- 유럽 주요 스타트업 콘퍼런스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실제 VC 투자가들과 피칭, 1:1 상담 마련의 장 필요
 - * 상담 투자자 중 현지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Brainport는 지난 TNW 연계 K-Startup 참가 스타트업에 현지 파트너(투자자) 발굴, 입주지원 등에 대해 협조 가능하다는 의향을 표시하였는바, 상담한 한국기업이 네덜란드를 통한 유럽 시장 진출 재차 타진 시 상호 협조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2017 TNW 연계 K-Startup 글로벌 로드쇼 상담 내용)

3-2. (스마트시티) 개방형 프로세스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진출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유럽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 암스테르담
 - * 2018년 기준 약 85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암스테르담은 싱가포르, 바르셀로나와 함께 성공적인 글로벌 스마트 도시 사례로 꼽힘
 - * 암스테르담시는 '암스테르담 2040 도시 마스터플랜' 발표를 통해 혁신적인 도시 디자인, 스마트 기술 도입을 목표로 함

네덜란드 정부는 스마트시티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늘리고 있음

- 148개의 낫산 리프 전기차 배터리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축구 경기장으로 상업시설용 축전시설로는 유럽 최대
 - 2018년 여름 아레나 경기장에서는 자동차 구동은 불가능하지만, 가정전력 및 휴대폰 충전 등이 가능한 폐전지를 시스템에 재사용
 - 전력 출력은 사상 최대인 2.8MW*로 수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저장하며, 행사가 있을 때 비상용 전원으로 쓰고 보통 때는 인근 지역의 전력 공급망 안정용으로 활용
 - * 아이폰 50만 개 또는 암스테르담 7천 가구의 1시간 전력 사용량
 - 스타디움 지붕에는 전력 공급을 위한 4,200장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으며 Ajax의 홈경기, 유럽 대륙컵 경기 등 높은 전력이 필요한 행사에 예비 전력 역할을 할 수 있음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팀 챌린지, 리빙랩, 스마트시티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기업이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
 - 네덜란드는 개방형 프로세스를 통한 민간 참여 유도방식으로 서면심사를 거치지 않고 도시 내 여러 장소에서 각각의 프로젝트를 실험한 후 성공한 프로젝트에 한해 도시 전체에 적용하는 방식
 - * 도시가 직면한 이슈를 시민, 과학자, 정부,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지역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
 -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커뮤니티는 'ACS 웹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 오프라인에서는 '스마트 시티 체험랩'을 운영하여 시민들과 직접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또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소개 및 주요 프로젝트 기관 방문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3. (신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개발 수요를 활용한 현지 협력 진출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네덜란드는 연간 80억㎥ 규모의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며, 유럽 내 전체 2위
 - * 네덜란드의 수소에너지 생산량은 EU 25개국 연간 총생산량의 약 13% 규모
 - * 정부는 2020년까지 최소 2,000대의 수소자동차와 100대의 수소 버스, 20대의 수소화물차 상용화 및 20개의 수소충전소 신설을 목표로 함



탈탄소화(decarbonisation)를 위한 수소에너지 개발 노력

- 네덜란드 정부는 대기 질 개선 및 석유 의존성 감소 등 미래 해결책의 일환으로 수소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에너지, 환경 투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MIA, VAMIL* 시행
 - * (MIA) 네덜란드 기업청에서 지정한 환경리스트에 공시된 환경친화적 투자에 대해 투자 비용의 최대 36% 세금 공제 프로그램으로, 최소 투자 비용은 2,500유로며 최대 2천 5백만 유로까지 공제 가능
 - * (Vamil) 기업이 환경리스트에 해당하는 투자의 75%가 감가상각되는 시기를 임의로 지정하여 유동성과 이자 이득을 제공
 - 수소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연료전지, 연료전지 자동차, 수소 버스 및 소규모 수소생산 유통시설 등을 지원함
- 네덜란드 정부는 2050년까지 전기열차를 바탕으로 운송수단의 완전한 무공해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22대인 수소전기차(FCEV)를 2025년까지 2,000대로 늘리고, 대중교통 버스 100대 확충 및 수소충전소 증설 계획을 수립
 - 또한, 2016년 기준 2대인 수소화물차를 20대로 확충하고 수소 트럭을 300대 규모로 늘릴 예정
 - 운송 무공해화의 주요 목표로는 2035년까지 신규 생산 자동차의 완전 무공해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60% 감축 등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네덜란드 수소경제 관련 기업과의 기술협력으로 현지 진출 가능성 제고
 - 친환경 수소 경제도시시는 기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제, 고용 손실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현지 수요 증가세
 - 또한, 네덜란드 북부지역에서 유럽 최초의 친환경 수소 경제도시가 실현되면 가스 생산량 감소로 인한 경제, 고용 손실을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네덜란드 수소에너지 분야 산업 관련 시스템, 전문인력 등의 수요도 동반 확대 예상되며 지속 증가 전망

4 진출 시 유의사항

대금결제 의무 불이행	필수 인증 준비
▪ (현황) - 네덜란드 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결제 의무 불이행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기업 파산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가능 ▪ (대응전략) ☞ 거래 전에 네덜란드 상공회의소(www.kvk.nl)에서 기업 등록 여부 확인 필요하며, 신생 기업(1년 내 등록 포함)과 상공회의소 말소-등록 반복 기업 의심 필요	▪ (현황) - 네덜란드 진출을 위해서는 EU 인증(CE마크, 에코라벨, 에너지 라벨, VOC 함유량 라벨, 화학물질 함유량 라벨, 식품 라벨 등)을 획득해야 함. - 또한 품목에 따라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인증서(원산지 증명서)가 필요 ▪ (대응전략) ☞ 인증서와 증명서를 갖추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비용이 클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내용을 잘 인지하고 바이어 부담 부분을 명확히 파악해 계약에 반영

거래 방식	현지 관행
▪ (현황) -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유럽 전역 또는 베네룩스 지역에 대한 독점 에이전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대금결제 방식은 기존 L/C 거래에서 점차 신용 거래로 변화 중이고, 네덜란드 바이어들은 30일에서 90일 정도의 외상거래를 선호하는데 여의치 않을 시에는 T/T 방식을 택하기도 함 ▪ (대응전략) ☞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되 최소 연 매출 조건, 1년 정도의 한정기간의 영업권 독점 보장 조건 등으로 내용을 절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현황) - 네덜란드인들은 약속시간 미준수는 노동력을 낭비하는 것으로 여기며 간단, 직접적인 대화 신호, 미팅 목적 설명 뒤 바로 본론으로 돌입 ▪ (대응전략) ☞ 약속에 늦을 때는 미리 알려주는 것이 예의이며, 미팅 종료 시간에 대한 관념도 정확 ☞ 직관과 감정보다는 수치와 사실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 협상 시 제안과 대안의 토론 방식이 자연스러운 만큼 이성적인 태도 및 차분한 의견 전달 필요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330499	수입관세율(%)	0
화장품	수입액('18/US\$백만)	817.35	대한수입액('18/US\$백만)	15.35
	선정사유	- 한국 화장품이 네덜란드 주요 리테일 시장으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시장동향	- 기존에는 주로 소규모 웹숍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현지 대형 유통망에서도 K-Beauty의 수요가 늘고 있음 - 기존의 K-Beauty에 대한 인식이 특이한 원료, 귀엽고 재미있는 패키징 등으로 소수의 소비자층에 어필하는 면이 많았다면, 이제는 고기능성 제품, 세련되고 심플한 패키징, 비건, 오가닉 제품 등 K-Beauty의 새로운 면모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음		
	경쟁동향	- K-Beauty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K-Beauty의 디자인적 요소를 차용한 유럽 내 브랜드들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뷰티 제품에 대해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유럽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K-Beauty의 장점도 보유한 유럽산 브랜드들이 K-Beauty 브랜드보다 고객접근성이 높음		
	진출방안	- 동물실험금지, 유해성분 사용자제 등 K-Beauty의 특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독특한 디자인, 특이한 원료 등으로 이목을 끄는 게 아니라 실제 유럽의 기준에 맞는 품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 필요 - CPNP(유럽화장품등록)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		
품목명 2	HS Code	330749	수입관세율(%)	0
디퓨저	수입액('18/US\$백만)	116.58	대한수입액('18/US\$백만)	0.004
	선정사유	- 단순 디퓨저 제품보다는 부가가치 가미된 제품(일례로 건화가 추가된 제품)이 인기		
	시장동향	-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디퓨저 제품은 많으나, 부가가치가 가미된 제품(예를 들면 건화 또는 액세서리가 추가된 제품)이 선물용 제품으로 인기		
	경쟁동향	- 디퓨저는 대체로 럭셔리 브랜드의 고가제품과 저가제품으로 나뉘어 있음 - 저가제품과 차별화되는 부가가치를 추가하여, 중간대의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하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진출방안	- 화장품 제품과 달리 CPNP 등록 등의 까다로운 인증이나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선물류 품목을 유통하는 디스트리뷰터를 통한 공략이 효과적		
품목명 3	HS Code	8415	수입관세율(%)	2.20
에어컨	수입액('18/US\$백만)	847.37	대한수입액('18/US\$백만)	138.48
	선정사유	- 평균 25도를 넘지 않았던 네덜란드 여름 날씨가 3~4년 전부터 전 세계 이상기온 현상과 더불어, 최대 38도까지 올라가거나, 이상기온 기간이 길어지면서 폭염 극복을 위한 냉방기기제품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갑작스런 폭염으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네덜란드 내 전자 기기 매장에 선풍기와 에어컨 품질 현상 발생		
	시장동향	- 네덜란드에서 에어컨을 수입한 국가 1위가 독일, 2위가 한국 그리고 중국이 그 뒤를 이어 3위를 차지 - 지난 3년간의 에어컨 수입액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대비 '17년 12.7% 증가, '17년 대비 '18년 28.16%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 '19년 여름에는 이상기온으로 무더운 날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2019년 냉방 기기 수입량이 예년 대비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경쟁동향	- '18년 총수출액을 비교해 보면, 2위인 한국의 수출액은 중국의 수출액 대비 15% 높음 - 한편,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 수출액의 성장률임. 한국의 성장률은 '17년 19.5%, '18년 9.17%인데 비해, 중국의 경우 '17년 10%, '18년 25%로 높은 성장을 나타냄		
	진출방안	- 현재 네덜란드에 수출된 한국 에어컨은 대체로 유럽 진출 대기업제품(삼성, LG)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 - 최근 네덜란드 내 중국산 수입량이 대폭 상승한 점은 브랜드보다 가격이 중요 구매 조건으로 작용한 면이 있음 -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우리 중소기업제품으로 타겟시장을 공략 하면 중국제품의 점유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품목명 4	HS Code	842199	수입관세율(%)	0
정수기	수입액('18/US\$백만)	335.97	대한수입액('18/US\$백만)	5.82
	선정사유	- 네덜란드는 주로 수돗물을 식수로 많이 사용해 왔으나 점차 식수 오염에 대한 우려로, 정수기의 사용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정수기 시장 진출 가능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		
	시장동향	- 네덜란드에서 정수기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음 -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타입의 정수기 증가 - 네덜란드의 정수기 수입액은 '18년에 '17년 대비 17.82% 증가했으며, 한국은 11위로 높은 순위는 아니었으나, 122.67%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경쟁동향	- 신규 브랜드가 점차적으로 진입하고 있고, 주로 신기능 제품, 사용이 간편한 모델이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 - 수도에 직접 연결된 방식의 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음		
	진출방안	- 신기능 제품, 현지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의 제품으로 어필하는 것이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품목명 5	HS Code	842139	수입관세율(%)	0
공기청정기	수입액('18/US\$백만)	329.29	대한수입액('18/US\$백만)	2.63
	선정사유	- 예전에는 거주용, 공업용으로 한정적인 판매시장을 가졌던 공기청정기 제품이 이제는 소매시장에서도 판매되는 추세로 늘고 있음		
	시장동향	-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 환경과 맞물려 생활가전으로서, 공기청정기의 수요가 늘고 있음 -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문제로 소비자들의 경각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시장수요가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여겨짐 - 스마트센서와 인공지능의 기술도 향후 5년 간 시장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상업 공간, 사무실, 가정 내 공기오염 물질과 세균을 제거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며 스마트 공기청정기의 수요도 증가 - 네덜란드에서 공기청정기는 독일과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되고 있었으나, 점차적으로 아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증가		
	경쟁동향	- 현지시장에서는 SHARP의 Active Plasma Cluster Technology, Philips와 Dyson의 제품이 다양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공기청정기 신기술로 각광 받고 있음 - 현재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주요 성장요소 중 하나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음. 현재 인기 있는 기술은 HEPA필터(고성능미립자제거필터)를 이용해 독소, 매연 등의 공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식임		

	진출방안	- 현재 이용되는 공기청정기 필터 기술(HEPA 필터, 활성탄소, 전자침전, 이온필터) 보다 발전된 신기술이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제품이 나오면 현지시장의 관심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품목명 6	HS Code	870899	수입관세율(%)	0
A/S용 자동차부품	수입액('18/US\$백만)	1647.60	대한수입액('18/US\$백만)	9.91
	선정사유	- 2018년 한국산 자동차는 총 42,066대(시장점유율 9.40%) 판매됐으며, 이에 수반되는 A/S용 부품도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		
	시장동향	- 자동차는 유지·보수가 필수이므로 애프터마켓에 대한 수요가 필연적		
	경쟁동향	- 오일필터와 같은 범용제품의 경우, 유럽산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한국산 부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 중		
	진출방안	- 네덜란드 내 자동차 수리센터 및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		
품목명 7	HS Code	730100	수입관세율(%)	0
시트파일	수입액('18/US\$백만)	224.26	대한수입액('18/US\$백만)	0
	선정사유	- 네덜란드는 지반이 약하고 지하수위가 낮아 토목·건설 공사에 시트파일을 많이 사용하므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음		
	시장동향	- Global Trade Atlas 통계에 따르면, 룩셈부르크가 164.24US\$백만을 수출해 시장점유율의 73.23%를 차지했으며, - 그다음인 중국으로 19.36US\$백만을 수출하여 8.6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고, 한국에서의 수출은 전무한 상황		
	경쟁동향	- 룩셈부르크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으나, 중국산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한국회사들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신규시장으로 판단됨		
	진출방안	- BAM이나 Heijmans와 같은 대형 인프라 건설회사나 시공회사를 대상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유력		
품목명 8	HS Code	731210	수입관세율(%)	0
스틸와이어로프	수입액('18/US\$백만)	174.41	대한수입액('18/US\$백만)	18.06
	선정사유	- 오프쇼어 산업 회복에 따른 스틸와이어 수요 증가		
	시장동향	- 스틸와이어로프는 오프쇼어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해 예년 대비 스틸와이어로프에 대한 수요 증가		
	경쟁동향	- 영국의 Bridon과 인도의 Usha martin이 유력한 경쟁기업이며, 현재 한국 기업 간의 경쟁도 있는 편임		
	진출방안	- 프로젝트성 사업을 통한 진출로써, 네덜란드 오프쇼어 산업 관련 유통 업체를 통한 진입 필요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물류 (Fulfillment Service)	선정사유	- 네덜란드는 세계 21위의 E-commerce 국가로서,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250억 USD의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 Retail 산업의 9.6%에 해당하는 수치 - '풀필먼트(fulfillment)'란 물류센터에 상품이 입고, 보관, 출고되기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fulfillment service에 대한 수요가 주목받고 있음 - fulfillment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3PL(Third Parties Logistics)을 들 수 있는데, 3PL이 '오프라인'과 'B2B물류'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fulfillment은 '온라인'과 'B2C물류' 운영에 그 방점이 찍혀 있음 - 네덜란드는 탄력적인 노동 규정, 우수한 운송 솔루션, 시장과의 근접성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있음
	시장동향	- 네덜란드에 기존 진출해 있는 한국계 물류기업은 Fulfillment service가 아닌 B2B 사업을 하고 있음 - 온라인 판매시장의 성장(2017년 대비 10% 성장)에 따라 한국계 물류업체의 진출 필요성 대두 - 또한, 온라인 업체의 성장에 따라 재고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풀필먼트 업체에 외주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음
	경쟁동향	- 현재 네덜란드 Post 및 DHL, E-commerce사 등
	진출방안	- 기존 3PL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B2C 기능을 추가한 사업의 확장 가능
품목명 2		
핀테크 (FinTech)	선정사유	- 네덜란드의 안정적인 경제전망과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비추어 봤을 때 핀테크 성장 여지 충분함 - '17년 기준 네덜란드 내 400여 개의 핀테크 기업이 있으며, '17년에만 100개 이상이 설립됐음. 그 중 22%가 금융 서비스 기업이며, 12%가 기타 금융 서비스 기업임
	시장동향	- '16년 네덜란드 중앙은행(DNB)과 금융시장감독원(AFM)은 Innovation Hub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금융회사들에 혁신의 장을 조성하고 임시은행허가권 제도를 도입함 - 기업들은 Innovation Hub에서 은행허가권 없이도 상업화단계 이전의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상품을 실험해볼 수 있음
	경쟁동향	- 네덜란드의 RaboBank나 ABN Amro는 핀테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ABN Amro는 추가적으로 핀테크 기업 자금지원 계획 - 65%의 네덜란드 은행과 보험사들은 핀테크 기업들과 함께 협력 중이며, 82%의 네덜란드 기관들이 수년 내에 핀테크 기업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 네덜란드의 대표 핀테크 기업 Adyen은 전 세계 250여 개의 결제수단과 연동해 어디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보유 - Adyen사는 '16년 세계 핀테크 100대 기업 중 15위를 기록했고, 다른 네덜란드 기업으로는 I/O Digital, Quantoz, HitBTC사가 순위에 들
	진출방안	- 네덜란드 핀테크 시장 진출은 보수적인 네덜란드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만만치 않은 환경이라 할 수 있지만, - 네덜란드의 핀테크 기업과 기술협력을 진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품목명 3		
게임	선정사유	- 네덜란드 게임산업은 기업수나 게임산업 종사자수 면에서 모두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임 -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활성화된 게임시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결과에 부흥해 네덜란드 교육기관은 게임개발과정과 커리큘럼을 만들며 적극적으로 게임산업 인력 양산에 힘 쏟는 중임
	시장동향	- 네덜란드 인터넷 사용자 1610만 명 중 43%가 온라인 게임 이용자이고, 일인당 연간 약 137유로를 사용 - 기능성게임(serious game)은 네덜란드 게임산업의 매우 중요한 주축이며, 오락성 게임(entertainment game) 부문은 해외 게임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음 - 기능성게임(serious game)은 시뮬레이션 게임의 일종으로, 주로 교육용으로 쓰임. 채용과정, 위험상황 대응연습, 운전연습, 수술연습 등 여러 분야에서도 널리 쓰임 - 네덜란드 게임산업은 SNS플랫폼, 인터넷망, 무선통신(3g+)의 발전과 함께 모바일 기기로 확산 중임. 네트워크의 발달로 다중이용자게임(massive multiplayer online games: MMOGs)도 성장 중 - 네덜란드에서 인기 있는 MMORPG게임은 League of Legends와 World of Warcraft이고 Drakensang과 DOTA2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경쟁동향	- 네덜란드의 주요 게임회사들로서, Spil game은 네덜란드 최대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이며, 한 달에 1억3000만 번의 방문 수를 기록 - Real Networks가 '06년에 인수한 Zylom는 단순게임(casual game)시장에서 강자임. Ranji사는 기능성게임(serious game) 시장에서 강자임 - Triumph Studios사의 Overlord 게임, Guerilla Games사의 Killzone이 오락게임(entertainment game) 분야에서 성공함
	진출방안	- 네덜란드 게임시장은 늘어나는 규모와 인기에 비해 상업화에 취약함 - 많은 네덜란드 기업들은 소규모이고 자본화 전략을 아직 구사하지 못하는 중이므로, 상업화와 자본화 전략에 발달한 한국 게임업체들의 기술을 접목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사료됨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ICT 유망품목 진출 지원	• 유럽 상업용 통합시스템 전시회(ISE 2020) 한국관	1분기 암스테르담
2	해외 일자리 창출	• Korean Company Job Fair 2020 * 1:1 취업상담회, 취업·노무세미나, 워크숍 병행 개최	2분기 암스테르담
3	유럽 수입수요 증가 유망 소비재 타킷	• 유통업체 자체상표제품 박람회(PLMA 2020) 연계 사업 * 유럽 최대 PL 전시회 연계 소비재 상담회/세미나	2분기 암스테르담
4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 TNW 2020 연계 K-Startup 글로벌 로드쇼	2분기 암스테르담
5	K-Beauty 진출 확대	• K-Beauty 팝업스토어 및 수출상담회 사업	2분기 암스테르담
6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활성화	• Offshore Energy Exhibition 2020 전시회 연계 세미나 및 로드쇼 개최	4분기 암스테르담

(ICT) 유럽 상업용 통합시스템 전시회(ISE 2020) 한국관 개최

- 추진배경
 - 매년 지속 성장하고 있는 유럽 최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에 경쟁력 있는 한국 디스플레이 제품을 소개, 트렌드 선도 및 벤치마킹
- 사업시기 : 2020년 2월
- 사업내용
 - Korean Pavilion 참가기업에 대한 제품 홍보 및 이미지 제고 노력
 - 디지털 사이니지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제품, 오디오 비주얼 장비 분야의 유럽 유력 바이어에게 한국제품과 기술력 홍보, 비즈니스 기회 창출

(해외취업지원) Korean Company Job Fair 2020

- 추진배경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및 공사 경영층의 적극적 의지에 부응, 주재국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청년 구직자 해외 취업기회 제공
- 사업시기 : 2020년 4월
- 사업내용
 - 주재공관 등 유관기관, 본사 해외취업팀 등 관련 부서들과 총체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규모 확대

- 1:1 취업상담회와 병행, 현지 취업 및 노무환경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세미나, 워크숍 등 병행 개최로 시너지 효과 창출

(식품·소비재) 유통업체 자체 상표 제품 박람회(PLMA 2020) 연계사업

- 추진배경
 - 제조사 상표(brand)의 인지도가 낮으나 제품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수기업 제품을 모집하여, 세계적인 유통업체의 상표로 글로벌 시장 진출기회 제공
- 사업시기 : 2020년 5월
 - 매년 5월에 암스테르담 RAI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PLMA 박람회에 연계 추진
- 사업내용
 - PLMA 2020 박람회에 KOTRA 부스 설치 및 콘퍼런스 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규모 유통업체에 PL(Private Label)로 시장개척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제품을 모집, 글로벌 유통 바이어에 샘플제품 홍보, 입점 노력

(스타트업) TNW 2020 연계 K-Startup 글로벌 로드쇼

- 추진배경
 -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혁신제품 및 기술 홍보
- 사업시기 : 2020년 6월
- 사업내용
 - 유럽 최대 테크 컨퍼런스 중 하나인 'TNW Conference Europe 2020' 행사와 연계하여 TNW 전시장 內 한국 공동관 운영 및 네트워킹 디너, 참여 스타트업 IR, 수출상담회 등 부대행사 운영

(K-Beauty) 팝업스토어 및 수출상담회 개최

- 추진배경
 - 지난 수년간 노력해 온 K-Beauty 마케팅 노력의 결과로, 현지시장의 K-Beauty 관심 지속 증가
- 사업시기 : 2020년 2분기
- 사업내용
 - '18, '19에 개최해 온 팝업스토어 사업을 업그레이드 하여, 더 많은 K-Beauty 브랜드가 유럽 현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내 기관·기업과 협업하여 K-Beauty 전문 사절단 개최

(조선해양플랜트) Offshore Energy Exhibition 2020 연계 세미나/로드쇼

- 추진배경
 - 유망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사업시기 : 2020년 10월
- 사업내용
 - 유럽의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유망 전시회인 'Offshore Energy Exhibition 2020' 시기에 맞춰 전시회 인근 행사장에서 네덜란드 주요 선주사·프로젝트 발주처를 초청하여 구매정책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0년 네덜란드 정부 예산안 발표	2020.9.15	9월 셋째 주 화요일 Prince's Day



유망 전시회 캘린더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자/장소
IT	방송·통신, 보안·안전설비,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인터넷, IT, 텔레커뮤니케이션, 영상용스크린, 컴퓨터·PC주변기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상업용 통합시스템 전시회 (ISE)	2020.2.10 ~ 13 / 암스테르담
소비재	식품, 음료, 소비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라이빗 라벨 박람회 (PLMA)	2020.5.26 ~ 27 / 암스테르담
선박·조선	보트 엔진, 해상 전자통신장치, 구명용품, 부두 장비, 관련 액세서리 등	네덜란드 해양레저부품산업전 (METS)	2020.11.17 ~ 19 / 암스테르담

I. 한-네덜란드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네덜란드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현황

 네덜란드의 잠재력

○ 유럽 상품 유통의 허브

- * 네덜란드는 유럽의 3대 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중간 지점에 있어 유럽 주요 시장과의 근접성 뛰어남
- *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항과 항공운송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시장

- * 세계 500대 기업 중 12개, 유럽 500대 기업 중 24개사가 네덜란드 소재
- * 글로벌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²⁾에서 네덜란드는 2위 차지(2018년)

○ 유럽 ICT 인프라의 중심으로 발돋움

- 암식스(AMS-IX)는 유럽 1위 인터넷 공급망으로 유럽 전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와 연결되어 통신 트래픽을 관리

○ 전국에 분포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오픈 이노베이션과 산학연 협력활동 활발

- * 바이오(라이덴), 정밀화학(벤로), 하이테크와 반도체(아인트호벤), 농식품(와헤닝헌)분야의 성숙한 연구·산업 단지 보유

 주요국의 대(對)네덜란드 경제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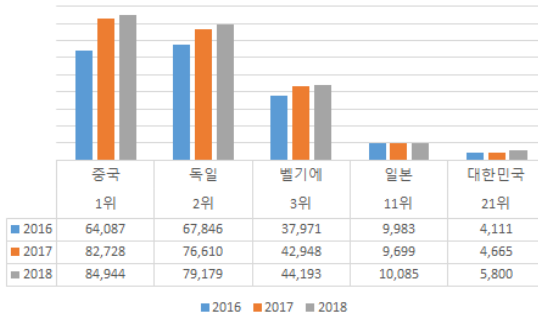
- 네덜란드 시장의 잠재력과 중요성을 높이 산 주요국은 다각적 차원에서 협력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실정

주요국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미국	• (무역) 미국은 네덜란드의 5위 수출국이자('18년 238억 달러) 4위 수입국('18년 399억 달러) • (투자) 네덜란드는 미국에 총 3,250억 달러를 투자('17년, 네덜란드 5위 투자국)했으며, 미국도 네덜란드에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8,290억 달러 투자('17년, 미국 최대 투자국)
유럽	• 네덜란드 수출의 약 71%는 EU역내로 향했으며, '10년 이후로 수출비중 감소 추세 •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200여개가 넘는 기업이 네덜란드의 이전을 고려 중
중국	• (무역)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786억 달러로('17년), 중-EU 교역의 두 번째로 큼 • (투자) 중국은 네덜란드에 680여개가 넘는 지점을 세워 15,000명의 현지 직원을 고용
일본	• (무역) 일본은 네덜란드의 22위 수출국이자('18년 50억 달러) 12위 수입국('18년 92억 달러) • (투자) 일본은 655개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Panasonic, Rakuten Medical, Kubota 등 일본 기업이 글로벌 본사를 네덜란드로 이전하는 추세

2) 미국 코넬대학교, 프랑스 경영대학원 인시아드, 세계지적재산기구가 매년 143개국을 대상으로 7분야(총 82개 항목)의 혁신역량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지수

네덜란드의 한국 및 주요국 교역 동향

1. 네덜란드의 연도별 주요국 수입액(단위 : 백만유로)



- '18년 네덜란드의 국가별 수입액은 중국(1위)이 약 849억유로, 독일(2위) 791억 유로, 벨기에(3위) 441억 유로, 일본(11위) 100억 유로, 한국(21위) 58억 유로 기록

- '17~'18년도 증가율로 비교 시, 중국 2.7%, 독일 3.4%, 벨기에 2.9%, 미국 11.5%, 일본 4%, 한국 24.3%증가

2. 대(對)네덜란드 한국의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 네덜란드는 한국의 수입 23위국, 수출 22위국
- 한국은 네덜란드의 수입 21위국, 수출 21위국

한국의 대(對)네덜란드 수출입 상위 품목(2018년, MTI4단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수출	제트유및등유	발전기	합금철	승용차	합성수지
수입	반도체제조용장비	반도체제조장비부품	나프타	윤활유	낙농품

3. 대(對)네덜란드 한중일 수출 상위 5개 품목

- 우리나라의 대(對)네덜란드 수출 상위 5개 품목 가운데 일본과는 3개 품목, 중국과는 3개 품목 중복

한·중·일의 대(對)네덜란드 수출 상위 품목(2018년, HSK 2단위)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한 국	보일러 기계류(84)	전자기기(85)	광물성 연료(27)	자동차류(87)	귀금속(72)
중 국	보일러 기계류(84)	곡물류(19)	광물성 연료(27)	커피,향신료(90)	플라스틱류(39)
일 본	보일러 기계류(84)	커피,향신료(90)	어패류(30)	광물성 연료(27)	육과 설육(02)

나. 한-네덜란드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보다 체계적이고 Win-Win 할 수 있는 협력 프로젝트 개발 필요

* 네덜란드의 니즈(수요측면)와 한국의 강점을 연결하여 상호 비전 달성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

네덜란드의 기술경쟁력 및 주요산업 리더십 보존을 위한 미래 핵심기술 지원

네덜란드 협력 수요 산업

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수소	◆ 장기발전을 위한 네덜란드 혁신 강화 - 유럽 내 ICT 인프라 발달로 혁신 기반 마련
ICT(5G, 플랫폼 경제)	스마트시티	◆ 미래자동차 산업 강화 -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리더십 유지
K뷰티 등 소비재	첨단기술/반도체	◆ 신산업 기술 리더십 유지·탈환 - AI, 바이오, 나노, 신소재 등
스타트업	물 관리/해양환경	◆ 4차 산업 분야 협력 - ICT(5G) 스마트팩토리 등

우리나라도 유럽 시장 진출 핵심교두보인 네덜란드와 경험개발 노력

네덜란드 수요 대비 우리나라의 역량

협력 우선 산업		구체적인 역량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수소	◆ 제조기술·생산능력 전 세계 최상위국 - Bloomberg Innovation Index 2018 5년 연속 1위
ICT(5G, 플랫폼 경제)	K뷰티 등 소비재	◆ 전통적 ICT 강국 - IT/정보통신 국가기술력 세계11위 (Business Insider, 2017년 6월)
첨단기술/반도체	기계장비	- 세계 최초 5G 도입
스마트시티	물 관리/해양환경	◆ 높은 전문 인력 / 기술 보유 - 대학 졸업자 비율 약 68%
		◆ 미래자동차(전기차·수소차) 선두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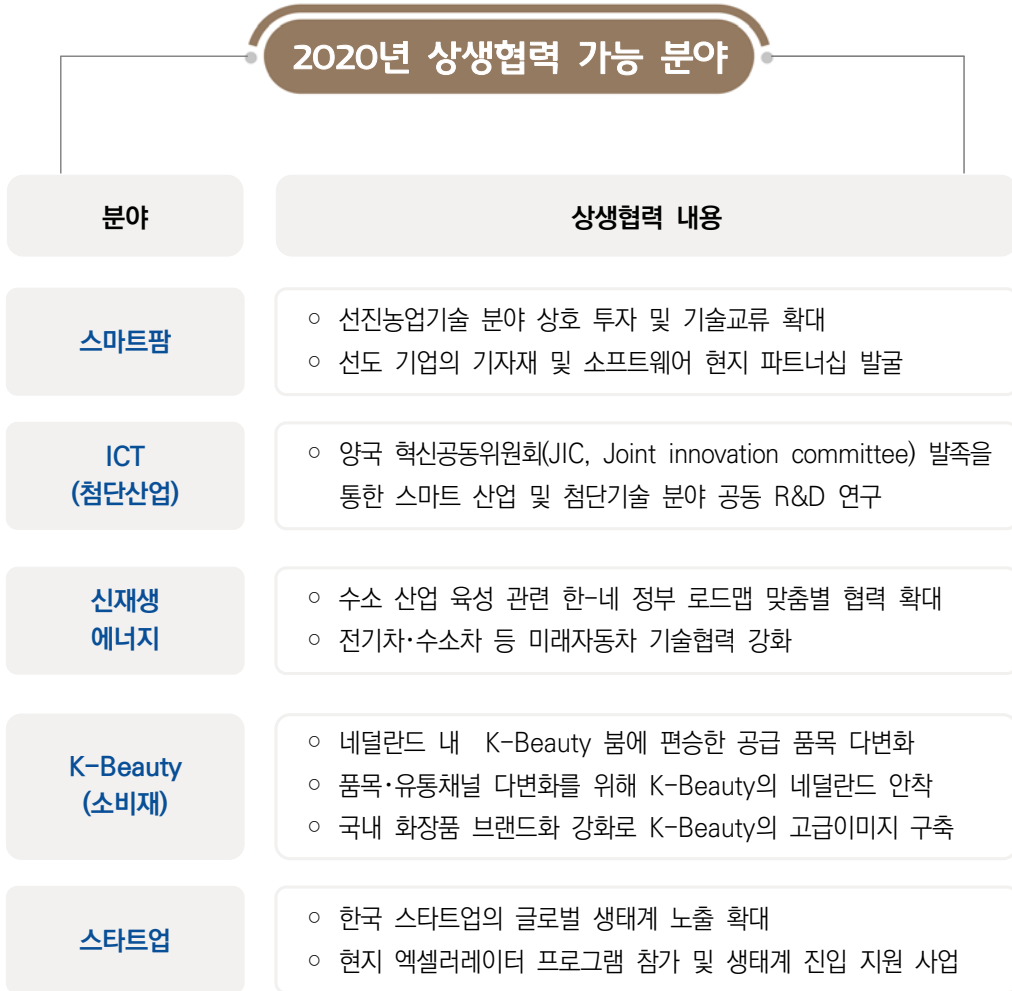
⇒ 양국은 좁은 국토와 한정된 자원을 극복하여 경제, 인재육성 등 발전 공통점

⇒ 네덜란드, 운송과 물류, 금융 등 서비스 분야 강점이 있고, 한국은 제조업과 정보통신분야가 발달되어 양국의 경제협력은 큰 시너지 효과 발휘 가능

한-네 미래비전 및 실현 전략으로서의 K패키지

세계 최대 성장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와의 경제협력다변화를 추구하는 네덜란드와**, 전략적 협력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 간 경제협력을 통한 미래 공동 지향점 설정

*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외교·안보·정치·문화 등의 추가적으로 반영 필요



한-네 상호 4차 산업혁명 기술 협력 기반 확충 및 동반 진출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① 한-네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격상(2016년 정상회담 이후)

2021년 한-네 수교 60주년 관련 고위급 사전 교류 확대 활용 필요

- (정책 수요) 2019년 9월, 제1회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 최근 양국 경제·통상 분야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한 의제 지속 논의
 - * 경제공동위원회 및 정부간 정책협의회의 신설('16.09), 정책협의회의('19.1) 등
- (기업 수요) 양국기업 중요 아젠다 교역확대 및 4차 산업 공동연구
 - 친환경 에너지(풍력, 수소에너지), 스마트 농업(푸드밸리, 종자산업), 4차 산업혁명(스마트 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방위산업, 스타트업 등
 - 우리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비관세 진입장벽(인증 등)
- (협력 방안) 양국의 강점 분야 기술을 살려 제3국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공조
 - 한-네 양국이 제3국에서의 에너지, 식량안보 등 글로벌 이슈 3각 대응

(한국+네덜란드) - 인도네시아	(한국+네덜란드) - 미얀마(등)
한국-네덜란드-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방조제 건설, 수자원 관리 등 3각 협력 진행	동 분야(미얀마에서의 협력) 및 여타분야(아세안 지역에서의 식량안보 증진, UAE에서의 농업개발)로 확대 추진

-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해 관련 4차 산업 공동연구

- (예시1) 농촌진흥청과 네덜란드 와게닝겐 농업 대학(WUR)은 2008년 농업기술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맺고 시설원예와 농식품 안전성, 최근 첨단기술개발과제(가축 생산성 향상 빅데이터, 축사모델 개선) 등 공동연구 추진
- (예시2) 포스코에너지-네덜란드 에너지 기술 연구소(ECN) 바이오매스 가스화 기술개발 과정 협력, 포항산업과학연구원(RST)-ECN 간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공동 연구
- (예시3) 양국 빅데이터 분석 기술개발을 위한 한-네 통계청 간 정보 교류 MOU 체결

- 한-네 핵안보 정상회의,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세계물포럼 등 개최 경험 공유
 - * 핵안보정상회의 : 2012년 한국, 2014년 네덜란드, 2010년 및 2016년 미국
 - *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 2013년 한국, 2015년 네덜란드
 - * 세계물포럼 : 2000년(2차) 네덜란드, 2015년(7차) 한국

② 상호 기술 협력 기반 구축

- (정책 수요) '14년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연계, 델프트 공대 기술 협력 MOU

- G2G 레벨의 상호 기술, 프로젝트, 인허가 취득 지원 기반 조성 필요
- (한국 역량) 한국원자력기술, 국제원자력기구 등 원구용원자로 기술 강점, 요르단, 사우디 등 원자로 기술 프로젝트 수주 활발
- (협력 방안) 양국 강점 기술 분야 협력 기반 구축 및 운영 경험, 노하우 공유
 - 해외정부 및 발주처 교섭 등 프로젝트 수주 공동 진출
 - 정부 레벨 협력을 통한 국제 유망 프로젝트 수주 확대 및 상호 협력 타진

한-네 G2G 레벨 유럽 최초 원자력 프로젝트 수주 사례

- **수주기업** : 한국원자력연구원,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KHC 컨소시엄')
- **발주처** : 델프트공대원자로연구소(RID)
(원자로, 원자력조사장치, 방사선리서치기구를 가동하는 핵지식센터)
- **프로젝트 내용** : 오이스터(OYSTER) 연구로 사업으로, 연구용 원자로 개발과 확장을 위해 시작된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대표 프로젝트
 - 2012년 1월 시작된 오이스터는 향후 10년간 원자로를 기반으로 한 방사선동위원소생산, 중성자방사화합분석, 양전자 소멸분광분석, 중성자산란 및 조영분야 연구와 교육 중점
- **추진경과**
 - (2014년 11월) 한국 원자력 연구원장-델프트 공대 총장이 양국 정상 앞에서 종합설계 시공계약 및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MOU 체결
 - (2015년 2월) 델프트공대는 한국 KHC 컨소시엄과 오이스터프로젝트 협정 체결
 - (2015년 10월) 원자로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1단계 사업 완료
 - (2017년 3월) 실제 기기 제작·설치·시운전을 수행하는 2단계 사업 착수, 2020년 완료 예정
- **수주의의**
 - 한국 업체 최초 선진국(유럽) 원자력 기술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 동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기술교류가 기대되며, 한국 원자력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
 - 수주 reference 확보로, 유럽 현지 발주처 및 유관기업들이 한국기업들에 주목하고 협력을 적극 타진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

나. [B2B]

① 스마트팜

- (정책 수요) 스마트팜 등 선진농업기술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인 네덜란드와 상호 투자 및 기술 교류 확대를 기대(2014년 한-네 정상회담)

한-네덜란드 농업협력 현황

한국	네덜란드	주요 협력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부	• 한-네 농업 협력 강화 MOU('14년 정상회담 후속) • 한-네덜란드 식량안보 컨퍼런스 공동개최('18.11.6)
농촌진흥청	와게닝헨 대학 연구센터 (WUR)	•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농진청-WUR간 업무협약 체결 ('18.8) *첨단기술개발과제(가축생산성향상 빅데이터, 축사모델 개선 등) 공동추진 중
국립종자원	낙타운바우 연구소 (Naktuinbouw)	• 식물 품종 관련 MOU 체결 ('14.9) 및 공동연구
화훼류종묘수출연구사업단	육종 기업 듀멘 오렌지 (Dumemen Orange)	• 화훼 사업 협력을 위한 MOU 체결('18.5) * 듀멘 오렌지의 공급 네트워크를 활용 국내 민간 육종가들이 재배한 장미 등 수출 방안 마련

○ (현지 수요) 세계 1위 농업대학 연구소와 식품 클러스터 중심, 정부·기업·대학 거버넌스 구조

- 농업을 연구하고 실제 적용하여 성과를 확산하고자 바헤닝헨 지역 반경 30km 이내에 클러스터 구축
- 1997년부터 바헤닝헨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네슬레, 유니레버, 하이네켄, 몬산토 등 글로벌 식품, 농약 회사들을 한 곳으로 모아 농산품 클러스터인 '푸드밸리(Food Valley)'를 조성

* 바헤닝헨 대학 연구소(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 Centre) : 농업/임업 분야 세계대학 순위 (QS World University Ranking)에서 2016년부터 계속 1위를 차지하는 유럽 내 최고의 농업대학교임

* 푸드밸리의 연간 매출액은 약 66조 원으로 네덜란드 GDP의 10%를 차지한 성공사례를 창출.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가 직접 나서는 대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 재단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책을 펼치며 성과 확산

○ (한국 역량) 농업분야 ICT 및 BT를 융합하여 우리 농업의 첨단화 추진 및 세계적인 농업경쟁력 확보 주력

- 스마트팜 혁신밸리(smart farm innovation valleys) 조성 4곳이 선정 완료, 향후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성공사례 공유 및 인적·기술적 협력 강화 필요

○ (협력 방안) 선도 기업의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수요 파악 및 현지 파트너십 발굴

-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프리바(Priva) 등 경쟁 우위 업체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의 다양성, 유연성, 가격 경쟁력을 갖출 필요
- 수직 농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LED 조명 등 관련 기자재 공급을 위해 현지 유력 파트너사 발굴이 중요
- 전력 효율이 높은 상품의 수요가 크므로 기술 경쟁력 있는 LED 상품은 업계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네덜란드 스마트팜 진출 사례

□ (주)한국 파루스, 네덜란드 3층형 육묘 식물공장 LED 조명 납품

* 한국 파루스는 식물재배용 LED 조명을 공급하는 회사로 식물공장 주요 소비시장인 미국, 유럽 등에 납품하음. 최근 네덜란드 현지 파트너사인 파루스 유럽과 협력하여 네덜란드 식물공장에 성공적인 진출을 하고 있으며, 2019년 그린텍(Greentech)에 참가한 파트너사(대리점)와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

○ 네덜란드 3층형 육묘 식물공장 납품 사례 (2018~2019년)

- 네덜란드 현지 파트너사인 파루스 유럽과 함께 최근 네덜란드 브로멜리아 3층형 육묘 식물공장에 LED 조명 납품 완료
-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현지 네덜란드 식물공장 수요를 파악하고, 네덜란드 농업설비 관련 전문업체로 활동하며 최근 유럽 식물공장 수요 파악 및 사후관리

□ (주)파루스 네덜란드 진출 성공 포인트

-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
 - 네덜란드 현지 대리점 형태로 파루스 유럽의 법인을 세워 해외시장 공략
 - 최근 개발된 육묘형 식물공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육묘를 기를 수 있어 수요가 높음. 현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이 관건
- 핵심 기술 연구 개발 및 기타 부품 아웃소싱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재배 LED 조명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중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 부품은 본사의 기술 개발 연구소와 필드에서 검증한 제품을 사용
 - 기술력이 수반되지 않은 일반적인 부품들은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하여 가격 경쟁력 있는 판매가 보장
 - 개발된 금형은 자체 보유하고 있어 대량 생산 시 빠르고 저렴한 원가 구성하여 경쟁력 강화

② ICT-스마트산업/첨단기술 및 혁신

○ (정책 수요) 네덜란드는 자국 경제성장 동력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선도산업과 연계한 미래 산업 대비 4대 분야*, 4대 핵심 기술** 선정

* 농업, 수자원 및 식품, 건강관리, 에너지 전환 및 지속가능성

** 광학, 인공지능, 나노기술, 생명공학

- 기존 혁신정책을 기반으로 ① 혁신분야 자금지원 강화 ② 기술이전 지원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방향 제시
- 5대 응용연구기관* 연구자금, TKI 등 민관 파트너십 지원 자금, 중소중견기업 혁신지원자금(MIT 펀드) 활용 예정

* Deltares(수자원), Wageningen Research(농식품), MARIN(해양), NLR(우주), TNO/ENC(에너지 등)

○ (한국 역량) 4차 산업혁명과 혁신을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인식 하에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2017년 11월)을 수립하여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ICT 등 핵심기술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

* People-Centered "Pla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Promote Innovative Growth

- 그 결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특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 상용화로서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5G+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5G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 추진

* (빅데이터) '18년 시장규모 전년 대비 29% 증가('17년 4,547억 원 → '18년 5,843억 원)

* (인공지능) '18년 전문기업수 2년간 59% 증가('16년 27개 → '18년 43개)

○ (협력 방안) 양국 혁신공동위원회(JIC, Joint innovation committee) 발족을 통한 스마트 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 공동 R&D 연구

- 양국이 이미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 오고 있지만, 양국 모두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첨단기술 및 혁신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향후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
- 한국과 네덜란드 모두 반도체 관련 강국으로서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해 나가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한국 반도체 현황) 2016년 제조업 총생산 6.7%, GDP 3.46% / 2017년 16만 5,000명 고용 창출, 세계 시장점유율 21.5% / 2018년 수출액 1,000억 불 돌파(2018.10기준 1,021억 불)

③ 지속가능성-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 (정책 수요) 양국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측면에서 정책적 지향점이 유사

- 네덜란드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어 양국 간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기회가 보다 확대 가능

○ (양국 역량) 한-네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협력사업 현황

- 제주대 풍력공학부와 네덜란드 에너지연구센터(ECN) 간 풍력분야 협력 MOU(2016년 10월), 제주도 풍력터빈 실험장 설계·운영 협력 중
- 풍력산업협회(한)-풍력협회(네)간 MOU(2014년 4월, 2017년 6월), 양국 풍력협회 간 공동 기술연구, 워크숍 개최(2015년 11월, 2016년 6월) 등 지속 추진 중

▶ (네) 총 에너지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 7.4%(2018) → 14%(2020) → 16%(2023) → 100%(2050)

* '18년 발전원별 비중 : 바이오매스 55%, 풍력 27%, 태양광 17.5%, 수력 0.5%

▶ (한) 총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원 비중 : 7.6% (2017) → 20%(2030) → 30-35%(2040)

* 신규 발전설비 용량은 '17년 15.1GW → '30년 63.8GW (48.7GW 증가) 계획

* 신규설비용량의 대부분은 태양광 30.8GW(63%), 풍력

○ (협력 분야) 수소 산업 육성 관련 한-네 정부 로드맵 맞춤형 협력 확대

- 네덜란드는 유럽 내 제2위 수소에너지 생산국으로, 해상풍력 발전소 등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해서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계획을 시행

* 네덜란드는 유럽 내 독일에 이어 2위 수소에너지 생산국이며, 대부분 천연가스 (약 70억㎥, 총생산량의 약 87.5%)를 통해 생산되며 연간 총 80억㎥ 규모의 수소에너지를 생산(2018년 기준)

- 2019년 G20에서 수소와 혁신이 강조되었으며, 한국도 수소경제로드맵(Hydrogen Economy Roadmap, '19년 1월)을 발표하였고, 서울시 내 첫 상업용 수소충전소(hydrogen station)가 설치되는 등 수소산업 육성에 민관이 함께 노력

- ▶ (네)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버스, 트럭 등 2,620대 보급 확대 및 수소충전소 20개 증설, 풍력·태양광 발전을 통한 수소 생산 계획 추진
- ▶ (한) 2040년까지 수소 승용차·버스·택시 등 국내 290만대('18년 900대)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활용 확산

4 소비재 유통 - 화장품

○ (정책 수요) K-뷰티 수요 지속적 증가 및 관련 식품, 소비재 수요 확대

- 최근 5년간 한국산 화장품의 네덜란드 수출은 386만 불(2014)→2,500만 불(2018)로 8배 이상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만큼 인기가 늘고 있고,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 신규수출기업 진출가능성이 높음

네덜란드의 한국 화장품 수입 규모, 2014-18년

(단위 : 만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對)한국 수입액	386	493	1,073	1,482	2,445
전년 대비 수입 증가율	6.5	27.6	117.6	38.2	60.8

자료 : GTA(2019년 9월 확인)

○ (한국 역량) 한국 화장품의 패키징·디자인·기능성이 호평을 받으며, K-Pop·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젊은 여성고객 다수 확보

- 한국 화장품은 유럽 시장에서도 고가이나, 우수한 품질을 인정, 한국 화장품의 추가 기능성 (Anti-Aging 등)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가 높음

○ (협력 방안) K-Beauty 온-오프라인 사업을 통한 국내기업과 대형유통망 매칭

- 유럽 화장품 인증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기업 진입장벽 완화
- 화장품의 잠재 소비자층인 젊은 여성 소비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 공유, 인플루언서 마케팅 효과 확대

네덜란드 K-Beauty 신규수출 온-오프라인 사업 사례

① K-Beauty 팝업스토어 개최

- 참가업체: (국내) 내수기업 16개사, (해외) 관련 바이어 5개사
- 사업기간 및 장소 : 2019. 5.31~6.16 /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등
- 추진방식
 - 온라인 스토어 Haruharu Beauty, Little Wonderland, Koreosity가 암스테르담 시내에서 K-beauty 팝업스토어 진행
 - 기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던 제품과 유망 내수 업체 중 바이어가 희망한 제품을 수입하여 현장 판매 실시

② K-Beauty 온라인 포털 구축

- 사업기간 : 2019년 4월 구축 완료
- 추진 내용
 - K-Beauty 관련 브랜드, 공급생산지, 네덜란드 수입상, 인플루언서(블로거/유튜버) 등의 링크를 한곳에 모아놓은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포털사이트 제작
 - 산재되어 있는 K-Beauty webshop을 한 곳에 모아 현지 수요자들이 판매처에 쉽게 접근하고, K-Beauty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공

⑤ 한-네덜란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정책 수요) 네덜란드 경제부, 네덜란드 왕자를 스타트업 특사 임명

- 2017년 7월, 네덜란드 콘스탄테인 왕자는 네덜란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기관인 스타트업 델타의 특사로 임명
 - * 네덜란드 스타트업의 국제적 입지 강화와 혁신 스타트업 유치와 2020년 네덜란드 스타트업 생태계 3위를 목표로 함
- 주요 업종은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핀테크, 마케팅 등이 있으며 암스테르담 내에서만 2018년 총 1,824건의 엑시트를 이룸

○ (상호 협력) 암스테르담은 런던, 베를린, 파리에 이어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이뤄진 유럽 내 4위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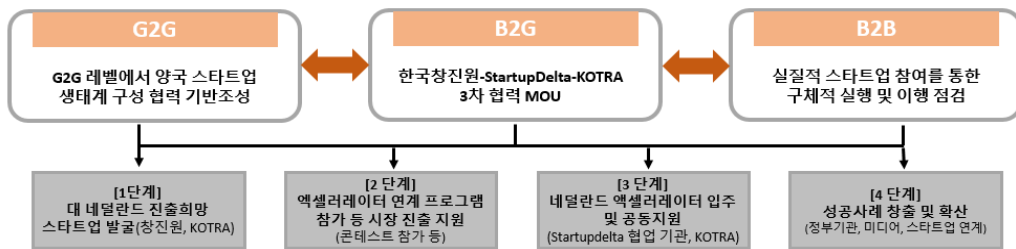
- 유럽 주요 스타트업 콘퍼런스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실제 VC 투자가들과 피칭, 1:1 상담 마련의 장

TNW 2017 한국관 참가개요

- 일시 : 2017.5.18.(목)~2017.5.19.(금) / 암스테르담
- 규모 : 20개사 참가, 총 24건 상담 주선(스타트업 11개사, 투자가/바이어 9개사)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경기혁신센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본투글로벌,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업진흥원, KOTRA 등
- 분야 : 웨어러블기기, 액화수소, 홍채인식 솔루션, 스마트 보안 솔루션 등
- 참고 :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과 협력, 현지 1:1 상담회 참가 희망 스타트업을 대상 현지 VC, 바이어들과 1:1 상담주선 및 상담회 운영

- (협력 방안)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생태계 노출 지원으로 Born-Globel 체질 강화 → G2G, B2G, B2B에서 상호협력 및 실질적 사업 창출
 - 네덜란드는 대학-연구소와 기업, 정부의 협력에 강점을 가진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음
 - 해외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이러한 협력체계 안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야 성공적으로 기업 생태계에 뿌리내릴 수 있음

협력방안 프로세스(안)



- 네덜란드 현지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참가 및 생태계 진입 지원 사업 추진
 - 창업경진대회를 매년 참관하는 필립스, ASML 등 현지 글로벌기업의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글로벌기업과 한국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협업사업 개발 추진
 - 본사 스타트업지원팀, 창업진흥원, 협회 등 유관기관 등과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현지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가·선정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현지 엑셀러레이터 활용 네덜란드 진출 스타트업 사례

- (기본 정보) 원소프트다임(OSD, Onesoftdigm)
 - 품목 : 스마트폰 체지방 측정기 개발
 - * 포항의 대표적 벤처기업인 원소프트다임은 경북소프트웨어융합센터의 지원을 받아 2015년 창업, 포항창조경제센터 GSV(Global Star Venture) 선정, 포스텍기술지주회사 투자 유치
- (진출 방법) 현지 엑셀러레이터 경진대회 수상, 네덜란드 법인 설립
 - 2017년 네덜란드 엑셀러레이터 HighTech XL(HTXL) 주관 창업경진대회에 Med Tech 31개사, High Tech 9개사, Fin Tech 63개사가 지원했고 열띤 경쟁 끝에 포항의 스타트업인 원소프트다임이 Med Tech 분야 1위 선정
- (사업 규모/해외진출) 하이테크엑셀(HTXL)로부터 네덜란드에서의 초기 투자금 15,000유로 유치하고, 네덜란드에 법인을 설립했으며, 필립스를 포함한 유럽 VC에게 IR 실시하여 글로벌 화학 기업인 DSM사의 CEO와 미팅 진행
 - * DSM은 네덜란드의 글로벌 화학기업이나, 현재 화학 사업뿐 아니라 Nutrition사업 도약을 위해 진단 장비 관련 스타트업에 관심을 보임
 - OSD에게 공식 진단 장비 파트너 및 Nutrition의 독점 공급처를 제안, 향후 세일즈 협력 관련 LOI를 체결했고, 제네바의 뉴트리션 푸드 전시회(VITA FOOD)에 OSD를 공식 장비 지원 파트너로 초대
 - 전시회 기간 중 DSM의 최대고객인 네슬레와 화이자 제약 담당자와 미팅 실시
 - DSM은 SARCOPENIA라는 노인구근감소 질병에 탁월한 진단 디바이스로 개발하려 하고, 이에 OSD는 하이테크 캠퍼스 인근의 Fontys대학의 마케팅 인턴팀과 파일럿 프로그램을 위한 리서치 준비 중임

다. [B2G] 에너지 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

① 인프라 - 스마트시티

- (정책 수요) 한·국토부-네·내무부 간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2019년 5월)
 - 국토부,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위한 범정부 지원방안 마련(2019년 7월)
 - 네덜란드, 아태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행사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국가관 참가(2019년 9월)
 - * 거버넌스관(국가 시범도시관·지자체관·해외관), 기업관, 체험관 등 약 250여 개사 900부스 설치
- (한국 역량) 한국 스마트시티 협력 요청 급증→협력 MOU 추진
 - 국가 시범도시(부산, 세종시) 사업의 글로벌 확산을 통해 프로젝트 수주 reference 확보
 - * MOU 실적('18~) : 페루('18.3), 오만('18.7), 중국('18.8), 말레이시아('19.3), 네덜란드('19.7)
 - 20년 이상의 신도시 개발 경험 및 10년 이상의 U-City(유비쿼터스 시티) 구축 노하우 축적으로 선진국 대비 도시개발 역량 우위
 - * '03년 화성 동탄을 시작으로 33개 지구 구축을 완료, 현재 46개 지구 사업 중
- (협력 방안) 네덜란드 등 선진국 형(型)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이해 및 공동 진출
 - 공통의 도시문제를 겪는 국가(EU, 미국, 싱가포르 등)와 특화 솔루션을 교차 실증하고, 이를 통해 제3국 공동 진출 추진

☞ (제3국 공동 진출 방안) 2019년 9월 개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16개 자국기업과 함께 부스를 차린 네덜란드는 동남아 등 스마트시티 시장 공략을 위해 한국에 협력 제안. 네덜란드는 수열에너지 기술 등 친환경 도시재생 솔루션을 보유

- 네덜란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국토부가 아닌 내무부에서 담당함. 신규 도시 건설이 아닌 시민이 활용하는 서비스 측면과 도시별 bottom-up 식의 리빙랩(Living Lab)을 통해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스마트시티 산업을 육성

한-네덜란드 교차실증 협력 추진(안)

- ▶ (네덜란드 → 한국) 부산 에코 델타시티(EDC) 시범도시에 신재생 에너지 및 폐기물 순환처리 인프라 등 네덜란드의 에너지·환경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실증
- ▶ (한국 → 네덜란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는 빅데이터·IoT·인공지능(AI) 등 한국의 데이터·플랫폼 기술을 네덜란드 주요 도시에 적용

② 에너지 - 물 산업

- (정책 수요) 한(韓) 환경부,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 개소(2019년 9월, 대구) 및 네덜란드 물 산업 연맹(WaterAlliance)과 업무 협약 MOU 체결
 - * ▲물 분야 기술개발 정보교환 ▲국제 협력관계 구축·연계 강화 ▲기술인증·인적교류 확대 ▲국제 홍보·마케팅 상호지원 ▲교육·훈련 역량개발 프로그램, ▲중소기업 사업지원 협력

○ (상호 역량) 세계적인 물 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끊임없이 간척 및 수처리 산업을 발전시켜왔으며, 그 결과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산업 경쟁력 보유
 - * 네덜란드 정부는 5년마다 국가 물 관리 계획(National WaterPlan)을 수립해 물 관리와 기술에 대한 미래 계획과 정책을 발간
- 네덜란드 북부 프리슬란트주에 레이우아르던시에 '워터캠퍼스'가 조성되어 전문인력 양성 및 유럽워터캠퍼스 비즈니스챌린지(EWCVBC) 프로그램 실시하여 유럽 전역의 수도 산업 기업인, 연구, 기술자 등 최신 기술 산업 트렌드 공유
 - * 네덜란드 국토의 26%는 지면이 해수면보다 낮으며, 29%는 하천 범람지역
 - * 특히 암스테르담, 헤이그, 로테르담 등 대도시들도 연안에 있어 홍수 위험에 노출돼 있음(이 60%의 지역에 네덜란드 인구의 절반 이상(9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국내총생산의 70%(6160억 유로)가 발생하고 있음)
- 한국은 2019년 9월 물 산업 클러스터 완공으로 물 산업 연구개발(R&D), 기술성능 확인, 실적 확보, 사업화에 이르는 전(全)주기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수출지향형 강소기업 육성 확대
 - * 맞춤형 물 기업 기술지원과 사업화 지원사업에 11개 기업을 비롯해 구매연계 기술개발사업 6곳, 기업 애로지원 3곳 등 2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

○ (협력 방안) 한-네 클러스터 네트워크 활용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 확대

- 네덜란드는 세계 물 산업 기술을 이끌고 있어 아시아·아프리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IT 기반 제조업

- ▶ 독일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009년 이후 모잠비크, 케냐, 방글라데시, 인도의 식수 저장 및 재사용 프로젝트를 추진해옴. 한국 기업들도 해외 정수장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물 산업 해외진출이 진행되고 있어, 네덜란드 기업과의 협력 모색
- ▶ 네덜란드의 Westt는 이스라엘의 Aqwise와 함께 폐수 정화과정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함. (Dynamic ANaerobic Aerobic)

- 한국과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싱가포르·중국·이스라엘 등 물 클러스터를 보유한 6개국 전문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물기술중심연대(GWTHA) 국제협력체계 참여,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사업과 방안 논의
 - * 국제 물산업 전시회 '아쿠아 테크(2019년 11월, 암스테르담)' 연계 국가 간 물산업 관련 협력 확대

라. [국민]

① 상생을 위한 인력 교류 확대

교육, 관광 분야 인적 교류 현황

○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서유럽 최초 한국어학과 개설

- 최근 유럽 대학의 한국어학과 평균 학생 수, 2007년 20명에서 2018년 100명으로 증가

- 네덜란드 북부 호로닝엔대에서는 현대 한국의 경제와 경영, 기업문화, 미디어 산업에 관한 신규 강좌 개설 등 교육 확대

* 최초 한국어 강좌('58) → 한국학 대학원 과정('61) → 한국학 정규 학사 과정 개설('80)

○ 네덜란드 교육진흥원(Nuffic)을 통한 한국인 유학생 유치

- 네덜란드 내 한국인 중 1/4이 유학생이며,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
- 석사 학위 장학생들에게는 석사 과정 졸업 후 1년간 새로운 비자 없이 현지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구직비자(Job searching visa)가 주어지며, 다른 유학생들에 비해서 기업들의 비자 스폰서십을 받는 것이 수월함

* 오렌지툴립장학금 : 네덜란드 교육진흥원(NESO)에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1개국에서 현지 학생들이 네덜란드의 17개 대학과 1개의 국제교육기관에서 학사 및 석사 정규 과정을 지원하며, 장학생들은 개인당 최소 2,000유로에서 최대 50,200유로까지 지원

○ 네덜란드 방문 한국 관광객 숙박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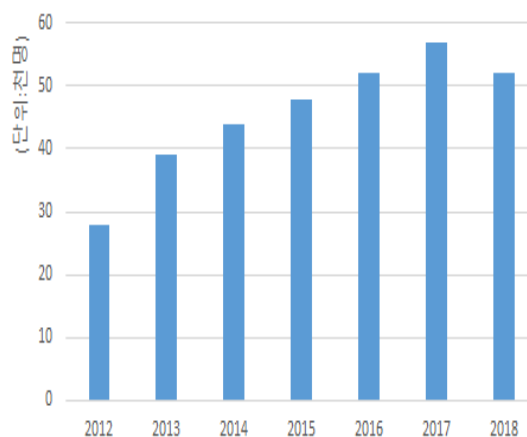
- 네덜란드 방문 한국 관광객은 최근 5년간 약 103% 증가

* (2012년) 28,000명 → (2017년) 57,000명

네덜란드 재외국민 및 유학생 교류 현황

연도별	재외국민 수	유학생수	유학생 비중
2008	1,865	271	14.5%
2009	2,022	266	13.2%
2010	2,085	271	13.0%
2011	2,256	356	15.8%
2012	2,482	254	10.2%
2013	2,533	284	11.2%
2014	2,597	310	11.9%
2015	2,825	413	14.6%
2016	3,017	585	19.4%
2017	3,419	744	21.8%
2018	3,783	936	24.7%

네덜란드 방문 한국 관광객 수



자료 : 네덜란드 통계청(CBS), 네덜란드 교육진흥원(Neso) (2019년 9월 확인)

② 진출기업의 CSR 활성화를 통한 마케팅 수단 및 전략적 경영활동

📌 대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CSR 활동 홍보 지원

○ 단순 나눔의 CSR에서 현지 시장 내 차별화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 대기업의 경우 활동 수행여부가 맞으나, 중소중견기업의 활동은 미비. 현지 진출 중소중견기업과 협업하여 현지시장 내 소비자(국민) 내 이미지 홍보

◆ **현대차, 네덜란드 '반 고흐 미술관' 한국어 서비스 제공 (2016년~)**

- 기존 주요 10개 언어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한글판 미술관 안내 책자 및 웹사이트, 통역 서비스를 제공(연 200만여 관람객, 한국인 약 3만 명)

◆ **반고흐 미술관 공용차량, 현대차 대표 전기차인 '아이오닉' 2대 제공**

- 반 고흐 미술관과 협업을 통해 고흐의 대표작 '해바라기' 및 '꽃 핀 아몬드 나무' 그림을 입힌 '아이오닉 랩핑카' 제작
- 미술관 측이 업무용 차량으로 활용함으로써, 유럽 내 전기차 사용 비중이 높은 현지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

◆ **네덜란드 로얄더치 풋볼협회 모빌리티 지원 협약, 코나 EV 제공**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위해 코나 전기차를 협회에 제공하여 선수들 및 협회 내 차량 제공
- 현대자동차는 기존 자동차 산업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음

3 협력 방안

○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젊은 유학생 및 차세대 청년 자원 교류를 확대하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

- * 한-네 워킹홀리데이('16.10~, 정상회담 후속 조치) : 매년 최대 100명의 양국 청년들의 취업 교류
- * 네덜란드 오리엔테이션 비자(Orientation visa) : 네덜란드 및 세계 200위권 안의 대학에서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네덜란드에서 1년간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비자

○ **네덜란드 한국인 유학생 및 주재원, 고급기술이민자 대상 조세 감면제도 확대 및 발급 확대**

- *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고급기술 보유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30% tax ruling) 면제 혜택 적용 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대폭 줄임, 적용기간 확대 제안 필요

○ **또한, 네덜란드 내 한국어 학과 졸업생 및 관련 분야 학생들은 현지 진출 한국기업 고용 플랫폼 지원 확대**

- *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은 매년 한국 진출기업 및 네덜란드, 한국 유학생 대상 취업 박람회 개최('17년, '18년, '19년)

Ⅲ. 향후 對네덜란드 K패키지 실행체계(안)

①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한 지속적 이행점검 체계 가동

- 2019.9.24, 제1회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 개최 → 향후 정례적으로 개최
- 한-네 공동혁신위원회('16년 정상회담 후속) 개최 → 양국 혁신 담당 부처 협력 강화
- Sub 분과도 만들어, 분야별 트러블 슈팅, 신규과제 발굴, 실행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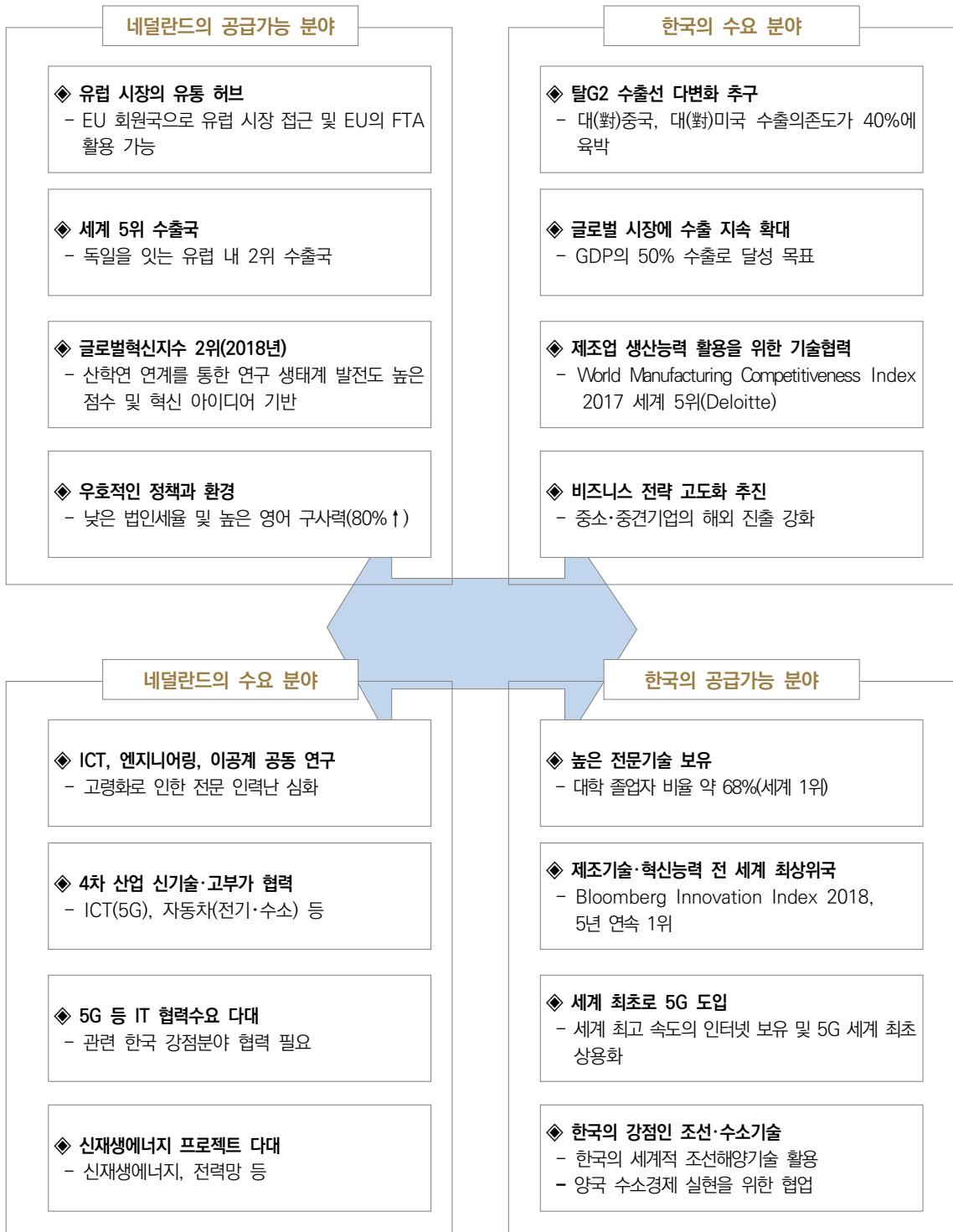
* 양국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두가 되는 거버넌스 스킴

거버넌스 모델(Governance Model)									
					Enablers		KOREA	NETHERLANDS	
							MOEF	외교부(MOF)	
							NETIRA	기업청(RVO)	
ICT		Automobile		Electronic System		Machinery		Road & Highways	
KOREA	NETHERLANDS	KOREA	NETHERLANDS	KOREA	NETHERLANDS	KOREA	NETHERLANDS	KOREA	NETHERLANDS
MSIT	OCW	MOTIE	RAI	MSIT	TNO	MOTIE	NVTB	MOLIT	I&W
KISED	TNO	MOLIT	RDW	NCIS		KCEMA		EX	ILT
KDI		KAMA		KSIA		KCEA		CAK	
Renewable Energy		Consumer Goods		Media Contents		Healthcare		Food	
KOREA	NETHERLANDS	KOREA	NETHERLANDS	KOREA	NETHERLANDS	KOREA	NETHERLANDS	KOREA	NETHERLANDS
MOLIT	EWI	MOTIE	NAWA	MCST	OCW	MOHW	VWS	MAFRA	RVWA
KEPCO	NeA	SBC		KOCCA	BNO	NHIS	RIVM	AK	LNW
KNREA		KIDP		SBA	DICTU	KPHA	CIBG	KCCI	DFA
Korea					Netherlands				
aT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DFA Dutch Fishermen's Association				
CAK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J&V Ministry of Justice and Security				
EX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RWS Rijkswaterstaat				
KAMA Korea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NWO Dutch Research Council				
KCCI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vK Kamer van Koophandel				
KCEA Korea Construction Equipment Association					NVTB Dutch Association for Construction Supply				
KCEMA Korea Construction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KDIII Korea Development Institute					RIVM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RvC Council for Culture				
KIDP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AK Ministry of General Affairs				
KISED Korea Institute of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BZK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KNREA Korea Renewable Energy Association					BZ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Def Ministry of Defense				
KPHA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BNO Association of Dutch Designers				
KSIA Kore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LNW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CW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MC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VWS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MOHW Ministry of Health & Welfare					I&W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Water Management				
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NO Netherlands organization for Applied Scientific research				
MSIT Ministry of Science, Information & Technology					SZW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NCIS National Computing and Information Service					RVO Netherlands Entrepreneurs Agency				
NHI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MKB Nederland				
SBA Seoul Business Agency					Fin Ministry of Finance				
SBC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② [향후과제] 관계부처 수요 반영, 정부차원 K패키지 마련, 순방 시 활용

- KOTRA 차원 자료로(대(對)정부 제안 성격), 양국 정부/유관기관/대기업의 구체적 수요 추가 반영 필요 → 정부차원 K패키지 마련
 - * 경제부문 중심이 아닌,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분야 참여주체 수요 반영
- 향후 한-네 정상회담 시 K패키지 내용을 공동성명 형태 발표
 - * 양국 정부부처 간, 기관 간 K패키지 실행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MOU 체결 병행

<한-네덜란드 상생협력 요약>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소정	과장	암스테르담무역관	+31-20-754-6902	happyending@kotra.or.kr

KOTRA자료 20-039

2020 국별 진출전략 네덜란드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185-2(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